

쿠르드종족의 현황 및 종족 복음화를 위한 선교전략

-시리아의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

한동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 MFR(Middle-east Field Research)
15기 조사팀¹

¹ 위 보고서는 한동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 MFR(Middle-east Field Research) 15기 조사팀에서 2009년 1월 1일 ~ 2009년 1월 21일까지 시리아의 알레포 지역을 중심으로 쿠르드종족에 대해 현장 조사한 결과이다.

I. 조사설계

1. 조사의 필요성

시리아(Syria)는 지리적으로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레반트(Levant)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예로부터 근동(Near East) 지역의 중심지로 불리며 경제와 문화 교류의 중심지 역할을 감당해 왔다. 시리아는 북한을 정치모델로 삼은 사회주의 독재체제로 국가가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며 인구의 90%이상이 무슬림으로 절대적인 이슬람의 영향 아래 있다. 최근에 시리아는 국외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요르단의 불참으로 붕괴 위기에 놓였던 아랍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러냈고, 10월에는 60년 만에 시리아와 레바논이 정식 수교를 맺었으며² 터키와의 경제적 파트너십도 만들었다.³

시리아인은 크게 아랍인과 비아랍인으로 나뉜다. 전체의 90% 정도가 아랍인이며 비아랍인들이 10% 정도를 구성하고 있다. 비아랍인 10%중에서 9% 정도(180만명)가 쿠르드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쿠르드족은 중동에서 아랍인, 페르시아인, 터키인 다음으로 큰 인종 집단으로 4,000년 이상 고유문화와 언어를 지켜왔지만 자신들만의 국가를 갖지 못한 소수민족이다. 현재 쿠르드족은 터키, 시리아, 이라크, 이란, 구 소련의 접경 지역인 산악 지대에 거주하고 있다. 제1차 세계대전 후, 민족 자결주의의 영향으로 전승국들이 세브르 조약(Treaty of Sèvres 1920)⁴에서 쿠르드족에게 자치정부 수립을 약속했다. 그러나 터키의

² <http://www.voanews.com/Korean/archive/2008-10/2008-10-16-voa16.cfm>(검색일자 2009년 1월 30일)

³ 시리아는 터키와의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2007년 다마스쿠스에서 무역협정을 타결하였다. 2008년 상반기의 양자 간 무역은 2007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보다 두 배로 증가하였고 터키의 회사들이 시리아의 원자재와 노동력의 저렴한 이점을 이용해 방직, 화학 및 식료품 공장들을 설립하고 있다. 터키의 대시리아 투자는 \$400m의 가치가 있고 앞으로는 더욱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http://www.missiontoday.co.kr/newsREAD.php?num=8345&code=0801004&PHPSESSID=a14ad4945772a060082c236fe2e4b160> 검색일자 2008년12월 29일)

4 세브르 조약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1920년 8월 10일, 프랑스의 세브르에서 연합국과 패전국 오스만 투르크제국 사이에 조인된 강화조약이다.

반발로 로잔 조약(Treaty of Lausanne 1923)⁵에서 쿠르드의 독립에 관한 조약이 채택되지 않았고 민족국가 수립은 물거품이 되었다. 전후 영토 분할 협상 과정에서 쿠르디스탄⁶이 터키, 이란, 이라크, 시리아 등으로 나뉘어지면서 민족이 분열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렇게 쿠르드족은 여러 나라에 분포하면서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민족주의적인 차원에서의 무장 투쟁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쿠르드족은 선교적인 관점에서도 비중 있는 종족으로 여호수아프로젝트 (joshuaproject)에서 지정한 미전도 종족 가운데 리서치 필요도가 높은 100개의 종족 중 하나이며 약 0.00~0.01%의 복음화율을 나타내고 있다.⁷ 또한 한국의 지역교회에서 터키나 이란의 쿠르드족을 입양한 사례가 있지만 시리아의 쿠르드족을 입양한 예는 없으며 시리아의 쿠르드족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사역자는 전무한 상황이다.

세계 쿠르드 인구의 52%는 터키에, 25.5%가 이란에, 16%가 이라크에, 5%는 시리아에, 1.5%가 러시아 등 동유럽에 살고 있다. 터키나 이란 등의 쿠르드 종족에 관한 연구는 계속해서 진행 중이고, 많은 조사가 이미 실행되었지만 시리아의 쿠르드 종족에 관한 자료는 매우 적다. 쿠르드인의 약 70% 이상이 머무르고 있는 북동부 지역은 정부의 철저한 감시로 인해 장기간 사역자가 머무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장기사역과 복음의 접촉점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단기간의 리서치를 통해 시리아의 쿠르드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조사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훈련팀은 시리아 쿠르드족의 문화, 종교, 사회, 정치 영향 등 종족에 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함으로 정체성을 규명하고 나아가 복음의 접촉점을 제시할 것이다.

2. 조사의 목적

5 로잔 조약은 1923년에 터키 공화국이 수립된 후에 스위스 로잔에서 터키와 연합국이 세브르 조약에 대한 제약을 없애기 위해서 다시 체결한 조약이다. 이로써 터키의 완전한 독립이 인정되었다.

⁶ ‘쿠르드인의 땅’ 또는 ‘쿠르드인의 나라’라는 뜻으로 쿠르드 민족이 옛날부터 거주해왔고 지금도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다. 현재 국가가 없는 쿠르드인에게 민족적, 문화적, 정치적, 지리적 통일성을 심어주는 가상적 국가 개념으로 터키, 이라크 접경지이자 시리아 북동부지역이다.

⁷ <http://www.joshuaproject.net/peopctry.php?rop3=105458&rog3=SY> (검색일자 2008년 12월 29일)

- 1) 시리아(Syria) 내에 거주하고 있는 쿠르드(Kurd)종족에 대한 총체적인 정보를 조사하고, 특히 역사적인 정황과 정치적인 영향, 사회상을 통해 그들의 정체성을 파악한다.
- 2) 쿠르드 종족에 대한 총체적인 정보와 정치 상황이 그들의 정체성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그들과의 복음의 접촉점을 제시하고, 다양한 선교전략들을 도출한다.
- 3) 조사를 통해 제시된 복음의 접촉점과 다양한 선교전략들을 중심으로 시리아에 거주하는 쿠르드 종족에 대한 정보를 한국 교계와 여러 선교단체에 알리고, 이를 통해 여러 분야에서 선교 헌신자들을 동원하며, 많은 중보기도자들을 세운다.

3. 조사지역

1) 시리아 알레포 이프린 (Syria, Aleppo, Afrin)

알레포(Aleppo)는 시리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로 다양한 종족들이 함께 살고 있는 도시이다. 쿠르드족은 알레포에 모여 살고 있으며 알레포 현지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현지인 목사님이 있기 때문에 쉽게 알레포 쿠르드족에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시리아 캄술리 (Syria, Al Qamshli)

터키와 이라크 국경지대와 근접한 도시인 캄술린에는 도시 전체인구의 약 70%가 쿠르드 종족으로 대부분이 무슬림이라고 한다. 약 30%정도는 앗시리아인들로 대부분이 크리스천인데 이렇듯 복음화가 많이 진행된 지역의 무슬림 쿠르드족에 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조사대상

시리아 쿠르드(Kurd)종족

5. 현장조사기간: 2009년 1월 1일 ~ 2009년 1월 21일⁸

기간	조사 지역	조사 대상	조사 방법
2009/01/01- 2009/01/04	시리아(Syria) 다마스커스 (Damascus)	쿠르드인	인터뷰
2009/01/05- 2009/01/11	알레포(Aleppo)	쿠르드인	인터뷰, 관찰조 사
	이프린(Afrin)	관공서, 사원, 학교 등	
2009/01/12- 2009/01/21	캄술리(Al Qamshli)	현지교회,	인터뷰 관찰조사
	말키에(Malikiyah)		
	하사케(Hassake)		

6. 조사인원

1) 한동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 중국 현지 조사팀⁹ 5명

	이름	학부 (학번)	역 할
1	이은택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07)	디렉터, 예배부장
2	김성은	국제어문학부 (06)	문서자료부장
3	이민아	산업정보디자인학부 (07)	총무부장

8 이 기간은 현장에서의 조사시간 만을 포함하는 기간이다. 본 조사팀은 2008년 9월에 구성되어 5개월 간 10주간의 학기 중 훈련(리서치 강의, 예배, 말씀양육, 캠프 2회, 리서치실습, 선교세미나, 부서모임, 지역연구 모임 등), 10일간의 합숙훈련(강의, 예배, 사전조사, 팀워크 훈련, 역할점검 등), 3주간의 현장조사, 10일간의 보고서 합숙 과정을 통해 리서치를 수행하였다.

⁹ 한동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의 선교 훈련 단체인 GFR(Global Field Research)에 소속된 8개 지역조사팀 중 MFR(Middle-east Asia Field Research) 훈련팀을 말한다. GFR 훈련 체계의 1단계인 조사팀(Training Team)은 미전도 종족 조사에 중점을 두고 훈련되며, 다음 단계로는 주제별 현장조사에 중점을 둔 미션팀(Mission Team)과 전문가팀(Expert Team)이 있다.

2) 통역자 및 현지가이드 3명 (보안상 가명으로 기입함)

	이 름	소 속	역 할
1	심OO	바울 선교회	현지가이드
2	K	쿠르드인	현지 코드 및 인터뷰
3	O	쿠르드인	현지 코드 및 인터뷰

7. 조사방법

1) 사전조사

(1) 문헌 조사

① 인터넷 조사

www.jammu.nic.in

www.jktourism.org 외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print/sy.html>

http://forminority.net/home/?mid=pds&page=1&document_srl=553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sy.html#Econ>

<http://www.kurdmedia.com/article.aspx?id=15179>

외교통상부, 시리아 무역투자정보 1.

KOTRA 시리아 경제 및 시리아 교역동향(2008.06.10)

② 문헌 조사

-김한지, “시리아 소수집단 알라위파(Alawites)의 집권과 국민통합 정책에 대한 연구”, [한국중동학회지], 제 27권, 2호(2007) p90

-한동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 MFR 14기, [알라위 종파의 현황 및 종파 복음화를 위한 선교전략], (포항, 2008)

(2) 전문가 인터뷰

시리아 사역자 정○○
시리아 사역자 심○○

2) 현장 조사

(1) 관찰 조사

-이프린(Afrin), 하사케(Hasakah), 말키예(Malikiyah), 캄술리
(Qamshli)

(2) 인터뷰

① 전문가 인터뷰

-M 목사님 (현지 아랍인)

-R 목사님 (현지 아랍인)

② 일반인

-K (쿠르드인, 50대, 엔지니어)

-O (쿠르드인, 50대, 영어선생님)

-H (쿠르드인, 20대, 대학생)

(3) 문헌 조사

-공지현, “『아시아 이슬람권 소수민족 비교연구』; 이슬람권 소수민족 분쟁의 전개과정: 쿠르드족 민족주의 운동 -지원과 전개 양상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제 18권, 2호(1999)

-박종평, “쿠르드족 문제와 갈등”,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제20권(2001)

-이희수, “쿠르드인의 종교생활”, [한양대학교 민족학 연구소] 제6권(1997)

-이희수, “중동 최대의 소수민족 쿠르드, 그 배신과 생존의 시나리오”, [사회평론], 제95권 2호(1995)

-박혁주, 이지영, [성경의 땅], (서울: 쿰란출판사, 2006), p184-232

- Lara Dunston, Terry Carter [Lonely Planet], (Sydney,

Lonely Planet Publications, 2008)

- Bruce Cumings, 차문석, 김태호 역, [악의 축의 발명; 미국의 북한, 이란, 시리아 때리기], (서울: 지식의 풍경, 2005)
- 콜먼 사우스, 황남석 역, [CURIOUS시리아; 지구촌 문화 충격 탈출기], (서울: 휘슬러, 2005)

8. 조사 성과와 한계점

본 조사의 가장 큰 성과는 시리아 내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지 못하고 비주류로서 살아가는 쿠르드족을 찾아서 체계적인 조사를 하였다는 것이다. 쿠르드가 살고 있는 국가들 중에서 시리아에 사는 쿠르드인은 전체 쿠르드인 중 비중이 가장 작기 때문에 많이 알려지지도 않았다. 또 쿠르드에 관해 조사된 보고서는 대부분 정부 차원이나 아랍인들이 수행한 조사이기 때문에 현지 쿠르드인들의 관점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본 조사팀이 시리아 현지에 쿠르드인들이 많이 사는 도시를 찾아서 쿠르드인들의 상황을 직접 살펴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 이 조사의 가장 큰 성과이다. 특히 쿠르드인 가정과 1주일 가량을 같이 생활하면서 그들의 민족성, 생각 등을 볼 수 있어서 더욱 깊은 조사를 할 수 있었다. 그리고 현지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한국인 사역자, 현지인 사역자 및 교회를 방문하여 시리아 쿠르드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하는지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었던 것은 큰 성과였다.

하지만 시리아 정부에서 쿠르드족에게 접근하는 외국인들을 감시하고 있는 상황이라 좀 더 적극적인 조사를 할 수 없었던 것이 본 조사팀의 한계이다. 처음 만나는 쿠르드인들은 정부의 감시 때문에 쉽게 본 조사팀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관찰조사 밖에 할 수 없었다. 또한 시리아 북부의 캄술리와 하사케를 갔을 때에는 비밀경찰이 본 조사팀을 감시하고 있어서 우리의 이동과 조사에 많은 제약을 받았다. 또한 본 조사팀이 몇 백년 이상 중동 몇 개국에 걸쳐서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어있는 쿠르드 문제를 심도 있게 알지 못하였던 것도 조사의 한계점이었음을 밝힌다.

II. 들어가는 말

2006년부터 MFR(Middle-East Field Research)팀은 중동의 소수종파에 대해 조사해왔다. 이번 15기 팀은 세계에서 가장 큰 소수민족인 중동의 쿠르드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자 한다. 쿠르드족은 고유한 문화와 역사와 언어 및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인구수도 약 3,000만명에 이르지만 그들의 국가가 없이 쿠르디스탄(쿠르드인의 땅)이라는 추상적인 범주 내에 거주하고 있다. 현재 3,000만명이나 되는 쿠르드족은 자신들의 나라가 없이 터키, 이란, 이라크, 시리아, 구소련 등지에 널리 분포하고 있다.

이슬람교가 발흥하기 전인 7세기 전에는 쿠르드인들의 상당수가 기독교인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7세기 중동에서 이슬람교가 발흥하여 중동이 이슬람 국가로 변해가기 시작했고 자신들의 나라가 아닌 중동의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었던 쿠르드인들은 이들 국가에서 이슬람교로 개종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으며 그들은 생존을 위하여 이슬람으로 개종하였다. MFR은 현재 쿠르드인들의 99% 정도가 무슬림이지만 과거에 기독교를 믿었고 옛날에 형성된 그들의 문화나 가치관이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가정을 세우고 이슬람교가 그들의 전통이고 생활이고 종교인 아랍인들과는 다른 상황 속에서 이슬람교를 받아들인 쿠르드인들은 아랍인들보다는 더 쉽게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시리아의 쿠르드족은 전체 쿠르드 인구 중의 5%를 차지하는 160만명 정도가 살고 있어서 전체 쿠르드족에서 비중이 높지 않은 편이다. 쿠르드족을 사역하는 대부분의 선교사는 터키나 이라크 등지에서 사역을 하는 상황이며 시리아 정부가 터키, 이란, 이라크 정부와 달리 지난 60년 동안 강력한 독재정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리아 쿠르드족에 대해서 조사된 자료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다양한 조사를 통하여 위의 가설을 세운 MFR은 이를 바탕으로 쿠르드인이 많이 살고 있는 4개 국가 중 가장 정보가 적게 알려진 시리아 쿠르드족을 조사하였다. 이 보고서를 통하여 시리아의 쿠르드족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그들에게 필요한 복음이 효율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사람들에게 잘 전해지기를 기대한다.

Ⅲ. 쿠르드 종족의 현황

1. 일반개요

1) 지역개관

중동을 여러 지역권으로 나누었을 때에 시리아가 속한 레반트(Levant) 지역은 예로부터 고대 알렉산더 대왕의 마케도니아 제국, 로마 제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의 다양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 레반트의 중심에 위치한 시리아는 소아시아의 터키와 접하며 지중해 동부에 위치하고 다마스커스가 수도로 인구의 90%가 아랍어를 사용한다. 인구는 약 1900만 명이며 전체인구 중 70.4%가 수니파 이슬람, 나머지는 이슬람의 소수 종파 및 기독교로 구성되어 있다. 시리아는 사회주의 공화제 정치체제를 택하고 있으며 현 대통령은 바샤르 알 아사드(Bashir al Assad) 대통령이다. 소수종파 출신인 아사드 대통령은 소수종파 및 집단을 회유하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지만¹⁰ 독립의 가능성을 내포한 쿠르드 종족에 관해서는 엄격하게 제제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쿠르드 종족은 시리아의 북부와 다마스커스에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다.

2) 정체성

(1) 종족유래

쿠르드족의 민족적 기원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B.C. 3000년경)이 발생하기 약 7000년 전으로 추정된다. 쿠르드인들은 지금의 쿠르디스탄 지역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고 신석기 시대에 수렵 채집 경제에서 식량 생산 경제로



¹⁰김한지, 시리아 소수집단 알라위파(Alawites)의 집권과 국민통합 정책에 대한 연구, 한국외대, 2007 p90

전환하여, 인근 메소포타미아와 아나톨리아 동부, 그리고 이란 고원을 비롯하여 북아프리카, 유럽, 인도에까지 농업 기술을 전했다. 본래 쿠르디스탄의 원주민들은 코카서스 계통¹¹의 사람들이었고 개별 부족 중심의 독립적인 사회 체계를 이루어 살고 있었다. 기원전 1200~900년에 아리안족이 이주하면서 동화되었고 인도유럽어족에 속하는 쿠르드인이 형성되었다. 이때 쿠르드족을 지칭하는 ‘쿠틸(Qutil)’이 최초로 등장하게 된다.

(2) 주요언어

쿠르드족의 주요 언어는 쿠르드어(Kudish)로써 페르시아어와 비슷하지만 이란어, 아랍어, 터키어와는 다른 유럽 인디언어에서 파생된 언어이다. 쿠르드어는 4개의 방언으로 나뉘어져 있는데¹² 이렇게 나뉘게 된 원인은 기원전 1세기 중반부터 시작된 민족 이동과 종교 유입으로 인한 문화적, 경제적 변화 때문이다. 또한 직접적인 쿠르드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재 당하면서 동유럽 지역에서는 러시아 알파벳을 사용하고, 이란에서는 이란 알파벳을 사용하며, 이라크에서는 아랍 알파벳을 사용하고, 터키와 시리아에서는 라틴 알파벳을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표준 쿠르드어가 부재하고 각 나라별로 언어 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 현재 시리아에서 쿠르드어를 배울 수 있는 공식적인 기관은 존재하지 않고 프랑스 파리의 소르본 대학원에 쿠르드어와 문화를 배우는 학과가 개설 되어있다고 한다.¹³

(3) 주요종교

쿠르드족의 종교는 전체의 인구의 97% 이상이 수니파 이슬람이다. 이렇게 쿠르드족은 절대 다수가 수니파 무슬림이지만 민족상의 이유로 다수의 투르크인이나 아랍인으로부터 박해 받고 있다. 한편 이란 영토 내의 바흐타란, 캅가와르, 하마단, 쿠르바, 비자르 등 쿠르디스탄 남부와 동부 지역의 약 5~7%의 쿠르드인들은 시아파 이슬람을 따르며 그밖에 다양한 이슬람의 이단 종파의 형태로의 종교가 존재하지만 극히 일부로 추정된다.

¹¹ 유럽, 북아프리카 중동 일대에 분포하는 백색인종 혹은 유럽인종이다.

¹² 쿠르드어는 크레 쿠르만지어에 속하는 북부 쿠르만지어(바흐디나니어)와 남부만지어(소라니어), 파틀라와니어에 속하는 디밀리어(자자어)와 구라니어 등 4개의 방언군으로 나뉜다.

¹³ 현지인 O와의 인터뷰 참조.

(4) 종족명 유래

쿠르드족은 소련의 역사학자 V. 미노스키에 의하면 메데스족¹⁴과 동일한 종족으로 간주되는데 기원전 653년경 바빌로니아인들은 지금의 쿠르디스탄 산악 지대와 메데스를 포함한 쿠르디스탄 거주민들을 쿠틸(Qutil)로 명명했다. 메데스족은 쿠틸에서 카르두(Qardu), 카르두크(Qarduk)라는 용어로 변형되어 사용되기도 했다.¹⁵ 쿠르드(Kurd)는 여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5) 종족 자부심

쿠르드종족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거주하지만 자신들의 고유한 정체성을 지키려는 열망이 매우 강하다. 이들은 종교나 다른 어떤 신념보다 종족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을 가장 우선시 하며, 공공장소에서 금지된 쿠르드어를 가정에서 엄격하게 교육시켜서 쿠르드 정신을 유지한다고 할 수 있다.¹⁶ 또한 친인척 결혼이 일반적으로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독자성을 유지하고 있다. 우스갯소리이지만 시리아와 한국이 축구를 하면 쿠르드 사람들은 한국을 응원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이것은 쿠르드 사람들이 정부와 아랍으로부터 받은 과거의 상처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인구¹⁷

(1) 인구

시리아의 전체인구 19,747,586명 중 쿠르드인과 알메니안(Almenians)과 그 밖의 종족이 약 9.7%이다. 또한 전체 인구의 연령별 분포는 0세부터 14세까지 약 36.2%이고 15세부터 64세까지 60.5%이며, 65세 이상이 3.3%이다. 한편 시리아 정부 차원에서 쿠르드 종족에 관한 인구조사를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¹⁴ 백인계 아리안족으로 기원전 7세기경 칼데아인(Caldeam)과 동맹을 맺어 앓시리아인을 멸망시키고 메디아(Media)왕국을 건설한 민족이다.

¹⁵ 한국이슬람학회, op.cit., p212

¹⁶ 쿠르드인들은 가정교육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데 언어뿐 아니라 쿠르드 역사와 전통, 문화 등을 엄격하게 가르친다.

¹⁷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print/sy.html>(검색일자 2009년 1월 30일)

(2) 평균수명과 성비

평균 수명은 약 70.9세로 남성이 69.53세이고 여성이 72.35세이며 전체인구 중 남성이 여성보다 약 1.05% 많다.

(3) 인구증감과 이동

인구증가율은 2.189%정도로 다산 풍습으로 인해 쿠르드족의 인구점유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¹⁸

(4) 종족 인구 이동

쿠르드인들은 주로 수도인 다마스커스와 북동부지역에 밀집해서 살고 있는데, 수도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쿠르드인들은 북동부 쪽의 도시인 캄술리, 하사케, 이프린 등지에서 이주한 사람들로 직업과 학업의 이유로 이동했다고 한다.

4) 지리

(1) 위치

시리아는 레반트 지역에 속하며 시리아의 북동부지역은 쿠르드인들이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땅, 쿠르디스탄에 포함되는 지역으로 많은 쿠르드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다. 북으로는 터키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이라크가 있다. 대표적인 도시로는 하사케(Hasakah), 캄술리(Qamshli)가 있다. 이 중 하사케는 북동부 지역의 지형적 요충지이며 캄술리는 터키와 인접해 있는 국경도시이다. 각각 50만 명과 4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으며 주민의 상당수가 쿠르드인이다.

(2) 지리

시리아는 2,253km의 국경지대가 지중해 및 레바논과 이라크, 이스라엘, 요르단, 터키 등 많은 나라들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 한편 쿠르드족은 이란, 이라크, 터키, 시리아, 구 소련에 걸친 평균 고도 3천 미터의 산악지대와 이라크 북부의 유전지대 및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의 주변에 살고 있다. 이 산악지역은 수 세기 동안 외부세력의

18 중동 최대의 소수민족 쿠르드, 그 배신과 생존의 시나리오, 이희수

침입으로부터 쿠르드족을 보호하는 요새와 같은 역할을 담당했지만 전체 통합과 해방투쟁을 할 수 없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¹⁹ 이렇게 타 문명에 대한 개방성이 낮기 때문에 이 지역의 쿠르드족은 주로 2, 3차 산업보다는 농업 등의 1차 산업에 종사한다.

(3) 기후

시리아의 서부지방은 지중해의 동쪽지역에 위치하고 동부지방은 사막에 위치하며 평균적으로는 6월부터 8월까지의 매우 건조하고 더운 날씨이고, 12월부터 2월은 종종 비가 오는 추운 겨울날씨이다. 시리아 북동부 지역은 타 지역의 기온보다 5~10도 정도 춥고 건조한 날씨이다.

5) 역사

(1) 시리아 역사

시리아 지방에서 발견된 문명의 흔적은 B.C. 10,000년 전의 유적으로 추정된다. 또한 초창기 도시 문명의 흔적이 우가리트(Ugarit)와 마리(Mari)에서 발견되었으며, B.C. 2,500년경 상업민족으로 유명한 페니키아인들이 지배적인 민족으로 1,500여 년간 이 지역을 통치하였다. 페니키아문명의 쇠퇴 이후 앗시리아 제국, 알렉산더 대왕의 마케도니아 제국, 로마제국이 차례로 이 지역을 지배하였다.

서기 622년 아라비아 반도에서 탄생한 이슬람교의 발흥에 따라 이 지역도 급속한 이슬람화를 겪었다. 7세기에 다마스커스를 수도로 하는 움마야드 이슬람 왕조는 압바스 왕조가 등장한 750년까지 이 지역을 통치하였다. 11세기에 시리아 지역은 유럽의 기독교 세력이 성지 예루살렘의 탈환을 목표로 파견하였던 십자군의 주요 원정로가 되어 도시가 파괴되기도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16세기부터 이 지역의 지배자의 위치에 있던 오스만 투르크는 19세기말 영국과 프랑스 등 제국주의 열강에게 자리를 내주었다. 20세기에 시리아는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배를 받았지만 2차 대전 후 독립하였다. 이후 범 아랍주의를 주창하며 이스라엘과 4차례에 걸친 전쟁에서 반 시오니즘의 선봉장역할을 담당하였다.

19 쿠르드족 문제와 갈등, 박종평

소수종파인 알라위파 출신의 하피즈 알 아사드(Hafez al Assad) 전 대통령은 바아스 당(Baath Party)을 기반으로 군부 권위주의 체제를 확장시켰다. 2000년에 그가 사망하자 그의 둘째 아들인 바샤르 알 아사드(Bashir al Assad)가 정권을 잡고 사회주의 독재체제를 오늘날까지 유지하고 있다.

(2) 종족역사

쿠르드족은 인종적으로는 백인계 아리안족으로, 기원전 7세기경 칼데아인과 함께 앗시리아를 멸망시키고 메디아 왕국(Median Empire)을 건설한 메데스(Medes)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다. 쿠르드족은 아랍제국의 제2대 칼리프 우마르(634~644년)의 영향으로 급속하게 이슬람화를 이루어졌지만, 압바스, 셀주크, 오스만으로 이어지는 아랍 제국의 통치하에서 쿠르드족의 반란은 계속되었다. 12세기에는 셀주크의 산자르(Sandjar) 왕자가 쿠르디스탄 주를 창설했는데, 이 지역은 오늘날 이라크와 이란의 남부지역에 해당된다. 하지만 이후, 오스만 터키왕조가 주류세력으로 편입되었는데 이들은 쿠르드족 내부에서 수니파와 시아파의 분쟁 상황을 유도함으로써 이라크 술레이마니아의 쿠르드족들을 우르미아 지역으로 이주하도록 하였다. 이 후, 1514년 오스만 터키 제국과 페르시아 사파비 왕조 사이에 발발한 찰디란 전투를 시작으로 영토가 분할되었고, 17세기 말까지 약 75%가 오스만제국에 복속되었다. 이 후 카자르 왕조(1837~1850)시대에는 쿠르드종족의 정치구조를 통제했고, 더욱 강력하게 중앙집권정책을 시행했다.

한편 쿠르드공국의 군주들은 쿠르드족의 독립을 주장하면서 자치독립한 국가를 건설하고자 노력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의 윌슨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가 전세계에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쿠르드족은 자치권을 얻을 수 없었다. 오히려 영국은 석유매장량이 풍성한 쿠르드족의 밀집지역인 모술지역을 지배하기 위해 이라크로 편입시켰고, 일부 쿠르드족 정착지역은 프랑스 위임통치 지역이었던 시리아에 편입되었다. 결과적으로 서구 제국주의 정책에 의해 국경이 나뉘면서 쿠르드종족의 독립운동은 무산되었고 현재 이란과 이라크, 시리아 및 터키에 이르는 광대한 가상의 범주인 쿠르디스탄 지역에 국가 없이 거주하게 되었다.

(3) 신화

쿠르드족에 관한 신화는 쿠르드족이 새해 명절로 여기는 3월 21일의 나루즈(Newroz)와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원 전, 사하크라는 폭군이 있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뱀 두 마리가 살고 있었고 이 뱀들은 매일마다 두 명의 어린아이의 뇌를 먹었다. 그러나 폭군의 신하들은 왕을 속여서 매일 한 명의 뇌만 가져다 주고, 두 번째 아이를 숨겨 아이의 목숨을 구했다. 한편 대장장이 카바는 자신의 아들이



폭군에게 바쳐져서 실의에 빠져있었는데, 남은 한 명 마저 데려가려고 하자 망치를 들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궁전을 습격했다. 결국 폭군을 죽이고 신하들이 살려두었던 아이들과 함께 국가를 세웠는데 그 국가가 바로 쿠르디스탄이며 건국일은 B.C. 612년 3월 12일이라고 한다.²⁰

현지인 K에 의하면 전통적으로 쿠르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쿠르드력이 있는데 그 달력은 2009년을 2621년으로 여긴다고 한다. 즉, 612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기원전 612년 3월 21일을 쿠르디스탄의 건국일로 삼았고 그 날부터 일수를 계산했기 때문이다.

2. 정치분야

1) 개요

시리아의 정식 국명은 시리아 아랍 공화국(Syria Arab Republic)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알라위파 소수 군부 정권의 독재국가이다. 1970년 쿠데타로 집권한 하페즈 알 아사드(Hafez al Assad) 전 대통령(사망)은 사회주의

²⁰ http://forminority.net/home/?mid=pds&page=1&document_srl=553(검색일자 2009년 1월 30일)

독재체제를 표방하며 북한의 지도자인 김일성 전 주석(사망)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 2000년 하페즈 알 아사드 대통령의 사망 이후, 시리아의 권력구도는 그의 둘째 아들 바샤르 알 아사드(Bashir al Assad)를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주로 인맥과 친인척 관계를 중심으로 권력구조가 형성되기 때문에 정치구조는 폐쇄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국외적으로는 북한과의 핵 거래 의혹으로 인해 미국과 외교적인 갈등이 존재하지만, 국내적으로는 군부를 중심으로 하는 독재체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회와 언론 및 통신수단 등을 통제하면서 점차 자신의 지지기반을 확보하고 있으며 경제 성장을 위한 점진적 개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²¹. 한편 쿠르드족은 소외되어 있는 종족으로 정치, 경제적으로 많은 혜택을 누리지 못할 뿐 아니라 억압 받고 있는 종족이다. 다마스쿠스, 알레포 및 북동부 도시에 주로 밀집해서 살지만 이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는 공공기관에서 찾을 수 없다. 또한 매우 감시가 심하기 때문에 북쪽의 하사케 지역의 경우, 외부인이 현지인을 만나면 정부기관 및 비밀경찰의 조사를 받는다고 한다.

2) 행정구조

시리아 전역은 14개의 행정구역(Governorates)²²으로 나뉘어 있다. 한 개의 행정 구역은 6개의 지역(District)²³로 나뉘어져 있다. 이 지역 안에 여러 개의 하위 지역(Sub-District)²⁴이 존재한다. 행정구역을 담당하는 지사(志士)는 내무부 장관으로부터 지명을 받으며 내각을 통해 승인절차를 거친다. 그 후에야 지역의 형식적인 선거를 통해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자리에 앉게 된다. 마나티크의 총책임자는 지역 주민의 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임기는 4년이다.

시리아의 쿠르드종족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는 다마스쿠스(Damascus)로 그 다음은 캄술린(Qamshli), 알레포(Aleppo), 하사케(Hasakah) 순이다. 수도인 다마스쿠스와 제2의 도시인 알레포에는 쿠르드 지성인들이 살고 있지만 북쪽의 캄술린과 하사케에는 쿠르드 빈곤층이 많이 살고 있고 대부분 상점의 직원이나 허드렛일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현지인터뷰에 의하면 캄술린에 ID card를 가지고 있지 못한

²¹ 시리아 소수집단 알라위파의 집권과 국민 통합 정책에 대한 연구, 김한지

²² 또는 무하파자트(Muhafazat)

²³ 또는 마나티크(Manatiq)

²⁴ 또는 나위히(Nawihi)

쿠르드족 사람들이 약 300,000명 정도가 된다고 한다.²⁵

3) 사법

시리아의 헌법은 1973년에 마지막으로 수정되었다. 이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의 임기는 7년이고 무제한 연임이 가능하다. 또한 대통령은 반드시 무슬림이어야 하지만 국교는 이슬람교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시리아의 사법체계 특징은 대통령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내각 임명권, 전쟁 선포권과 같은 기본적인 권한은 물론 국회에서 직접 법을 발의 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하고 있다.

시리아의 일반적인 사법 체계는 프랑스와 오스만 시민법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슬람법(샤리아)은 가정법원(family court system)에서만 사용될 뿐 모든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에 가서 어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임명한다는 위임장을 작성해야 하며, 소송이나 다른 민사사건은 형이 확정되기까지 몇 년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영어나 프랑스어를 할 수 있다. 변호사 비용은 상당히 저렴한 수준이다.

쿠르드종족 내의 종족 자체적인 사법체계는 존재하지 않으며 시리아의 일반적인 사법체계와도 동일하다.

4) 치안

시리아는 타 중동 국가(요르단, 레바논 등)에 비해서 치안 유지가 잘 되어 있는 편이다. 그 이유는 정부가 사회를 통제 및 감시하기 때문에 6가지 종류의 비밀 경찰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범죄 발생률이 비교적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만 감시하는 비밀경찰이 존재하는데 이 체제는 수상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고발하는 제도로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 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²⁶

5) 쿠르드족의 정치 분야 불평등

²⁵ 1968년 가말 압둘 나세르가 북쪽에 거주하고 있는 쿠르드인들에게 강제이주 명령을 내렸는데 저항한 사람들의 국적을 강탈해서 현재 약 300,000의 사람들이 국적이 없다고 한다. (현지인 O와의 인터뷰 참조)

²⁶ 현지 선교사님 인터뷰 참조.

쿠르드종족은 정치, 사회적인 영역에서 배제 되어있고 타 종족에 비해 차별 받고 있는데 5개의 정당이 존재하지만 합법적이지 않은 정당으로 인식 되고 있다.²⁷ 우리가 만났던 현지 쿠르드족 법학생 K는 대학 입학 시 전공을 정할 때, 국제정치(International Politics)를 희망하고 성적과 필요조건을 다 채웠지만 쿠르드족으로 특별 감시 대상에 속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입학 허가를 받지 못해서 결국 전공을 법학으로 바꿨다고 한다. 또한 쿠르드족의 경우 직장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까지 승진할 수 없는 관례가 존재한다고 한다.²⁸

6) 타 국가의 쿠르드종족

(1) 터키와 쿠르드종족

오스만제국과 페르시아의 영토에 속해 있던 쿠르디스탄의 지도자들은 식민지로서가 아닌 그들만의 영토에서 자치권을 누리려는 열망을 계속해서 키워왔다. 이 후, 오스만 터키 제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하면서 연합국과 터키 정부가 체결한 세브르 조약(Treaty of Sèvres 1920)²⁹에서 쿠르드족의 지역적 자치를 허용했다. 그러나 독립전쟁 이 후, 1922년 그리스에 대한 승리로 터키가 다시 국력을 회복하자 1923년 새롭게 연합국과 로잔 조약(Treaty of Lausanne 1923)을 체결 하면서 대부분의 쿠르디스탄 지역을 터키 영토로 규정하고 이전 조약의 독립국가 건설과 지위 문제는 사실상 폐지되었다. 1923년 터키 공화국의 창설로 인해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 대통령(Mustafa Kemal Atatürk)의 세속주의 정권은 정교 분리 정책을 실행했고, 모든 민족이 동일함을 강조했기 때문에 쿠르드종족의 고유한 언어와 문화는 인정받지 못했다. 이 후 터키정부는 지속적으로 쿠르드족 정체성을 부정하고 터키화 시키려는 동화정책을 사용했다.

오늘날 터키의 쿠르드족은 여전히 소외계층으로 ‘산악 터키인’으로

²⁷ Azadi Party, Future Party, Kurdish Democratic Alliance, Kurdish Democratic Front, Yekiti Party

²⁸ 현지 쿠르드인 K와의 인터뷰에 의하면 자신이 쿠르드종족이기 때문에 general manager가 될 수 없다고 한다.

²⁹ 쿠르드족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동부 아나톨리아 지역을 토착자치구역으로 해야 한다는 것 (제 62조), 쿠르드족의 독립국가 방안이 상정될 경우 연합국들은 반대 하지 않을 것 (제 64조)

통하지만 최근 EU 가입과 동시에 음악과 춤 등의 문화적인 분야에 있어서 쿠르드어를 사용하게 하는 등 쿠르드 종족에 관한 대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고 한다.³⁰

(2) 이란과 쿠르드종족

이란의 쿠르드 종족은 레자 샤(Reza Shah)가 집권할 당시 근대화 정책에서 제외됨으로써 경제적 낙후 상태가 계속되었다. 1941년 영국과 소련의 이란 침공을 계기로 이란 내 쿠르드족은 조직을 정비해서 1945년 쿠르드민주당(Kurdish Democratic Party)의 당수인 카지 무함마드(Qazi Muhamad)를 대통령으로 하는 마하바드 쿠르드 공화국(Republic of Mahabad)을 세웠다. 하지만 1년도 되지 않아 사라지게 되고 1930년 이후, 이란 정부는 쿠르드족의 민족문화를 말살하는 정책을 강화했다. 1970년대에 쿠르드족은 자치국가 수립에 대한 희망을 걸었지만, 호메이니가 주장한 범이슬람주의는 민족 및 사회 계층의 구별 없이 무슬림으로서 모두가 평등하다는 논리에 기초했기 때문에 쿠르드족의 분리 독립에 의한 자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란은 쿠르드 민주당(KDP)과 사회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대학생 지하혁명조직인 코말라(Komala)라는 두 단체가 대표적인 쿠르드 저항세력이다.

(3) 이라크와 쿠르드종족

이라크 쿠르드족은 약 4백만 명으로 이라크 인구의 약 1/5을 차지한다. 국제연맹이 쿠르드 소수민족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이라크에게 주요 유전지대인 모술(Mosul)의 통치권을 넘겨주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여된 자치권은 유명무실한 것으로 쿠르드족 내부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었다. 이라크 정부는 쿠르드족을 이라크 국민이며 산악지역에 거주하고 독특한 문화와 언어를 가진 주민 정도로 간주하면서 쿠르드족이 다수인 지역에 아랍인들을 대규모로 이주시키는 정책을 펼쳤다.

현재 이라크의 쿠르드족의 정치체제는 쿠르드 자치제(KRG, Kurdish Regional Government)로서 아르빌주(Arbil)와 다후크주(Dahuk),

³⁰ 터키 정부가 쿠르드 사람들을 차별하고 쿠르드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재하는 것이 밝혀지면서, EU에서는 터키의 민주화 수준과 인권 상황이 아직 EU에 가입할 수준의 것이 아니라고 발표했다. 이에 2009년 1월 5일 터키 정부는 음악과 춤에서만 쿠르드어를 사용하도록 허가했다. (현지인 O와의 인터뷰 참조.)

그리고 술래마니아주(al Sulaymaniyah)에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이라크 전체 면적의 약 19%인 8만 3043km²에 해당되는 지역이 쿠르드 자치 지역으로, 전체인구 2400만 명 중 410만 명으로 16%에 해당되는 쿠르드인이 살고 있다.³¹

(4) 쿠르디스탄 건설의 방해요인

쿠르드족의 자치독립에 대한 열망은 역사적으로 계속되어 왔지만 세 가지 난관이 이들의 통합과 자치 독립을 방해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정부가 쿠르드족의 자치독립을 결사적으로 반대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이라크의 쿠르드족이 거주하는 지역이 이라크 석유의 1/3이 매장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정치, 경제적으로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인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쿠르드족의 자치 독립을 주장하고 있는 정치조직 간 연대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쿠르드 민주당(KDP)와 쿠르디스탄애국동맹(PUK)간의 갈등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그들 내부에서 통합을 이루는 것이 어렵다.³²

마지막 이유는 강대국과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은 이라크 북부의 쿠르드족의 자치 독립을 인정하지만 터키의 약 1800만의 쿠르드족의 독립은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미국이 이라크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쿠르드 자치를 허용하는 것이 이라크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지만 친미정권인 터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이다. 이와 같이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자치 독립이 어렵다.

7) 요약

쿠르드족은 중동의 분쟁 원인 중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만큼이나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이라크를 제외하면 쿠르드족은 자치독립뿐 아니라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치적으로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에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감시를 당하는 것이 당연시 되고 있다. 쿠르드족의 정치적인

³¹ 현지인 K와의 인터뷰에 의하면 이라크의 아르빌주, 다후크주, 술래마니아주에는 쿠르드인을 위한 교회와 대학이 있고 대학은 무료라고 한다. K 역시 이라크로 가고 싶지만 다시 시리아로 돌아올 경우 비밀경찰의 표적이 되기 때문에 갈 수 없다고 했다.

³² 공지현, “쿠르드의 민족주의”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1999

이슈는 한 국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타 국가에 거주하는 쿠르드족에 관해서도 함께 조사하고 살펴봐야 할 것이다.

3. 사회분야

1) 개요:

시리아는 모자이크와 같은 사회이다. 아랍인, 앓시리아인, 투르크인, 쿠르드인 등과 같은 다양한 종족이 존재하며, 그들은 서로 융화되기 보다는 자신들만의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자체적으로 지역을 분할하여 친인척을 중심으로 집단적으로 밀집해서 거주한다.

쿠르드 족의 사회구조 또한 가족관계가 중시되고 친인척과의 교류가 활발하나, 시리아 일반적인 상황에 비해 여성과 아이의 지위가 높고 정치적 억압에 반하여 민족 정체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자신들을 시리아에 속한 인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쿠르디스탄에 속한 쿠르드 인으로 생각하는 만큼 시리아의 전반적인 사회 인식과는 미묘하게 다른 모습을 보인다. 종교보다도 민족의 정체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정부 및 다수의 타 종족으로부터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 가족구조

시리아에서 가족의 의사결정방식은 주로 가장의 의견에 따라 결정되고 분위기는 대체로 가부장적이다. 또한 형제, 자매 간 나이에 따른 서열과 위계질서가 분명하고 집단 문화의 영향으로 친인척 관계가 매우 중요하며 그 유대관계 역시 매우 깊다.

쿠르드족의 가족구조는 전체적으로 일반 아랍민족과 비슷하지만 일부일처제를 선호하고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분리되어 있지만 의사를 결정할 때 남성의 의견이 무조건적으로 우선시 되지 않는다. 친인척 관계는 타 종족보다 더 깊고 끈끈하다고 할 수 있는데³³, 결혼, 출산 및 장례 등의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개인의 의무로 여긴다. 또한 연장자를 공경하고 예의를 갖추는 것을 가치 있는 일로 생각한다.

³³ 현지 쿠르드인(K)과의 인터뷰에 의하면 쿠르드 종족은 종교나 직업 및 신분보다 종족 정체성을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3) 주변 종족 및 이웃과의 관계

시리아 내에서 쿠르드 족의 위치는 낮은 편이다. 쿠르드 족에 대한 억압이 정치적인 요인에서 기인한 만큼 억압의 주체인 아랍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쿠르드 종족은 종교보다도 민족의 정체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정부 및 다수의 타 종족으로부터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것은 억압에 대한 반발심과 차별의 결과이자 사회적, 경제적 차이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종족 자부심이 강하기 때문에 타 종족과의 긴밀한 연계점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4) 사회적 모임 및 단체

시리아 정부는 단체로 모이는 집회와 시위 데모 등을 철저히 감시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정부 주도하의 관제 데모만이 종종 있을 뿐 많은 수의 대중 집회가 존재하지 않는다. 대학교에서도 학교 축제나 그룹 활동 및 모임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성들의 경우 마을 단위로 수공예품을 함께 만들어서 경제 활동에 참여 하는 사회적 모임이 존재한다.

5) 여성의 역할

(1) 여성의 지위와 역할

이슬람 문화에서 여성의 지위는 남성보다 훨씬 열등하다. 시리아에도 이러한 경향이 있었으나 조금씩 개선되어 가는 중으로 전국적으로는 교육과 의료분야에서 여성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남성들의 영역이라고 여겨졌던 정치에도 진출하여 활동하고 있다.³⁴ 그러나 여성에 대한 차별은 여전하다. 공공기관과 외국계 기업을 제외한 일반 기업에서는 대체로 여성을 채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등 일반적인 인식은 부정적인 경우가 많다.

쿠르드종족의 경우, 아랍민족보다 여성에 대한 인식 및 사회 진출이 높은 편으로 일부일처제를 선호하고 여성도 대학을 진학시키는 것

³⁴ 현재 국가 의회 250명의 의원 중에 30명의 여성의원인 활동하고 있으며 의회 부의장도 여성이다.

등이 당연한 일로 여긴다. 대학 졸업 후 결혼을 하거나 만약 취업을 희망하면 직업을 갖는 것도 허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여성문제

아랍 여성들의 경우 20살이 넘으면 결혼 적령기를 놓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한다. 또한 이슬람 교리에 따라서 4명의 아내를 두는 것이 합법적이기 때문에 여성의 인권과 권리가 무시되는 경우가 많다.³⁵ 한편 시리아 사회에서 무슬림의 경우 이혼은 굉장히 쉬운데 이것 역시 꾸란에 근거한 것이다. 즉, 남편이 아내와 이혼하기를 원하는 경우 일방적으로 통보함으로 이혼이 성립되며, 이혼했을 경우 양육권은 대부분 아버지의 소유라고 한다.

6) 쿠르드족 사회 분야 불평등

시리아 정부는 쿠르드 종족의 고유한 특성과 문화를 인정하지 않고, 일반 대학의 쿠르드어 학과를 폐지시켜서 그들의 언어를 점차 쇠퇴시키고 있다. 심지어 작년 크리스마스에는 쿠르드 종족이 밀집해서 사는 거주지역에서는 쿠르드어로 노래를 부르거나 축하하는 것을 금지하는 일도 있었다. 이것은 쿠르드 사람들이 자국의 언어로 집단 행동을 하는 것을 경계한 정부의 처사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쿠르드족의 존재와 그들의 언어를 인정하지 않는다. 쿠르드족이 거주하는 지역의 지명은 예전부터 쿠르드어를 사용해왔으나 1970년부터 지명을 아랍어로 강제로 바꾸는 정책이 시행되었다.³⁶

7) 요약

시리아는 수많은 민족들이 모여서 한 나라를 이루고 사는 국가로 모자이크와 같은 사회이다. 가족을 중심으로 집단을 형성하며 종족과 종교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형성한다. 이슬람교의 교리에 따라 여성의 인권은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 보장받지 못하며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쿠르드종족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타 종족보다

³⁵ 모든 시리아인 가족은 바타카아일리안이라는 공식적인 가족증서가 가지고 있는데 남편에 관한 정보를 기입하는 칸은 한 개이고 부인에 관한 정보를 기입하는 칸이 4개가 존재한다.

³⁶ 쿠르드 지명을 사용하는 메이돈키에서 아랍어 지명인 미담으로 바꿈.

공동체의식을 더 많이 강조하며 친인척간의 혼인으로 쿠르드 정신을 보호한다.

4. 경제분야

1) 개요

시리아의 1인당 GDP(Gross Domestic Production)는 4,500\$³⁷로 조사대상 229개국 중 148위에 위치하여 아직은 저 발전국가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시리아의 경제는 전체 산업 소득의 23%를 차지하는 농업과 27%를 차지하는 제조업이 이끌고 있다. 최근에는 자국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이용하여 관광업을 새로운 산업으로 정부에서 적극 육성하고 있다.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의 취임 이후, 시리아는 경제 부문 개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6년 발표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그러한 조치의 일환이며 이를 통해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시리아의 경제활동의 자유는 조사대상 157개국 중 142위³⁸에 속하고 있는 등 정부의 실질적인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금융 서비스 시장의 경쟁력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³⁹ 국민경제의 유효수요는 충분한데 비해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 지지 않는 단점이 있다.

2) 산업구조

시리아의 산업 구조는 급속한 개방화에 따라 점차 2차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달하는 추세이다. 한편 도시에 사는 쿠르드족은 엔지니어, 선생님, 상점 종업원 등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지만 시골에 거주하는 쿠르드족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한다. 올리브나무, 그립스 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쿠르드족이 사는 어느 지역에서든지 발견할 수 있는 나무로 예전부터 이런 나무들을 이용한 산업이 발전되어 왔다. 올리브유를

³⁷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sy.html#Econ> 참조

³⁸ 외교통상부, 시리아 무역투자정보 1.

³⁹ 시리아의 금융 서비스 시장은 2005년에야 민간은행 설립이 허가 될 정도로 경쟁력이 취약하다. 때문에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시리아인들은 대부분 시리아 은행에 현금을 예금하기보다는 인근의 레바논 계 은행을 선호한다.

추출하는 등의 가공업과 농업 및 삼림업 등이 발달했지만 제조업이나 공업 등은 발전하지 않았다.

3) 발전수준

(1) 물가

지난 수년간 시리아의 물가성장률은 5%대로 안정세를 유지해 왔으나 2007년, 2008년을 겪으며 시리아 물가는 10%이상의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⁴⁰ 물가 상승은 최근의 고유가 추세뿐만 아니라 이라크 전쟁의 여파로 이라크 난민의 유입에 따른 부동산값 상승과 걸프 지역에서의 송금 증가 등 복합적인 요인이 한꺼번에 작용하여 벌어진 일로 해석된다.

또한 음식료품 값 급등, 유가 보조금 축소로 인한 유가 상승 등 실질적인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물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2008년 초 시리아인들은 많은 고통을 겪었으나 현재는 안정단계이며, 고 물가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물가상승과 시리아의 개방화 정책에 따른 서구문물 유입, 빈부격차의 가속화 등으로 인해 시리아인들의 마음이 점점 각박해지고 있음을 또한 알 수 있다.

(2) 지역별 발전 수준

시리아 경제에 관하여는 믿을 만한 통계수치를 얻기가 매우 어려우며, 정부가 독재적이고 비밀스럽기 때문에 공식적인 데이터가 출판되더라도 그것이 사실을 반영하는 것인지 의심하게 된다. 현재 시리아 내에 지역별 소득이 공개되어있는 통계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으며,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서서히 이행하고 있는 단계에서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다.

(3) 쿠르드족 경제 분야 불평등⁴¹

⁴⁰ KOTRA 시리아 경제 및 시리아 교역동향(2008.06.10)

⁴¹ 쿠르드인 K는 엔지니어로 알레포에 자신의 집을 소유하고 4명의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다. 그가 집을 소유하고 살 수 있는 것은 미츠비시(Mitsubishi)라는 일본계 외국회사에서 4년간 일했기 때문으로 현재 한 달에 400\$의 봉급을 받는다고 한다. 한편 현지인 O는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의 영어선생님으로 알레포에 자신의 집과 한 대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5명의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다. 그 역시 현재와 같은 삶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8년간 아부다비에서 영어 선생님이로 일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현재 한 달에 약 300\$의 봉급을 받는다고

쿠르드 사람들이 90% 이상 거주하는 지역은 수도의 루크나딘(Rokuaddin), 조라바(Zorava), 알레포(Aleppo)에는 아슈라피에(Ashurafee), 셰이흐 막쉬드(Sheihk makshid), 부스탄 알 바샤(bustan al basha)라는 도시가 있다. 이 마을들은 수도와 시리아 제 2의 도시인 알레포에 위치해 있지만 다른 마을들에 비해 확연하게 낙후된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셰이흐 막쉬드(sheihk makshid)라는 도시는 전기와 물을 시민들이 직접 충당하고, 정부의 지원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었으며, 행정체계가 발전되지 않아서 집문서 등 정부와 관련된 공식적인 증서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 지역의 약 75%의 사람들이 빈곤, 생활고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가난을 이기고자 10살 남짓의 어린이들이 대부분 일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쿠르드 사람들이 99% 이상 살고 있는 이프린(Afrin) 근처의 키마르(Kimar)라는 지역은 소방서나 병원 및 사회 제반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았고 자동차가 없어서 낙타나 당나귀 등을 운송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컴퓨터가 없기 때문에 외부와의 소통은 TV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낙후된 것은 정부차원의 지원이 없기 때문으로 시리아의 전반적인 농촌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고 할 수 있다.⁴²



(4) 최근 동향

시리아는 2006년에 시행된 제10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사회주의 시장경제(Social Market Economy)로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의 경제정책 방향은 재정 건전화,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수입 자유화 등 ‘경제의 다양화 및 개방화’가 큰 골격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⁴³

한다. 한 달에 300~400\$로 7~8명의 가족을 부양하는 것은 시리아 현지 물가를 감안했을 때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와 같이 K와 O와 같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쿠르드인이 알레포와 같은 대도시에서 집과 자동차를 소유하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삶을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⁴² 현지인 K와의 인터뷰 참조.

⁴³ KOTRA 시리아 경제 및 시리아 교역동향(2008.06.10)

한편 바샤르 대통령이 취임한 후 중산층이 사라지고 빈부의 격차가 심해졌는데 이것은 대외적으로 경제발전을 도모하지만 경제 및 사회의 폐단을 낳는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4) 요약

시리아는 대내적으로 지역별 발전 수준의 격차가 심하고 특히 쿠르드족의 집단 거주지역에는 전기와 물과 같은 기본적인 사회 제반 시설이 잘 갖춰지지 않은 곳이 많았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대 시리아 무역제재조치를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EU 회원국과의 경제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지, 또한 고유가 추세와 전세계적인 불황의 파고를 타고 시리아의 경제가 도약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5. 생활분야

1) 개요

시리아의 생활은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경제적인 요소나 독재정권 구조를 가진 정치적인 요소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평화롭고 안정적인 편이다. 주식인 호브즈, 라반, 홈무스 등의 경우에는 정부차원에서 서민을 대상으로 공급하고 있고, 복장과 생활 역시 많이 개방되고 있다. 의료나 보건에 관련된 제도와 의식은 다른 중동 국가보다 낙후된 점 등을 미뤄볼 때, 개선될 필요가 있다.

2) 식생활⁴⁴

(1) 주식

① 호브즈

시리아 전체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주식이다. 한국인들에게는 특히 걸레빵으로 불리는 빵으로 식사 때마다 개인 그릇 옆 식탁 위나 무릎 위에 한 두 장씩 둔다. 누룩이 없이 부풀리지 않고 구운 밀가루 빵으로 야채를 싸먹기도 하고 유제품, 잼 등을 발라 먹기도 하는 매우 다양한

⁴⁴ 선교지역연구 MFR 14기 시리아 알라위 편에서 참고하였음.

방법으로 먹을 수 있는 빵이다.

② 마끌로베

밥을 할 때 오리나 닭, 소고기, 야채 등을 함께 넣고 올리브 기름과 함께 삶은 음식이다. 한국 음식과 비슷한 느낌으로 함께 들어간 재료에 따라 맛에 차이를 보인다.



③ 샤와르마

호브즈에 치킨과 감자칩, 갈릭 소스와 피클, 토마토 등을 넣어서 보기 좋게 말아 살짝 구운 음식으로 한 끼 식사로 든든한 음식이다. 거리에서 주로 요리사가 직접 닭고기를 썰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만들어주며 가격은 50리라 정도이다.

(2) 접대 음료

① 샤이(Shai, 홍차)

손님을 초대할 때나 몇몇 사람이 모일 때면 반드시 등장하는 홍차이다. 막 끓인 뜨거운 주전자 채로 가지고 와서 각 사람의 찻잔에 부어주고 설탕을 많이 넣어 달게 마시는 것이 특징이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많이 마신다. 잔이 비워 있으면 계속 권하기도 한다.

② 카와(Qahwah, 아랍 커피)

굉장히 진한 아랍식 커피로 현지인들은 설탕을 넣지 않고도 많이 마신다. 커피가 매우 진하므로 밀크커피에 익숙해진 한국인에게는 좀 쓸 수도 있다. 보통은 설탕을 넣을 것인지 물어본다.

(3) 식사예절

일반적으로 주인 쪽에서 손님에게 음식을 대접할 때는 아주 많은 양을 대접한다. 식사를 대접 받는 손님이 주인이 차려놓은 음식을 너무 적게 먹으면 주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손님 입장에서는 너무 적게 먹는다는 인식을 주지 않을 정도로 먹는다. 식사를 마친 후, 두 손바닥을 마주치면서 ‘다이메’ 라고 하는데 이것은 ‘잘 먹었습니다’라는 의미이다. 그러면 주인 쪽에서 ‘싸하’ 라고 응답하는데

이는 ‘건강하세요’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3) 의복

(1) 평상복

무슬림과 비 무슬림이 공존하는 시리아 내에선 의복문화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무슬림이라도 부르카, 히잡, 차도르나 터번 같은 무슬림의 복장을 따르지 않는 사람도 있다. 계절별 기온 차가 크기 때문에 무슬림의 의상을 고수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기온이 50도까지 올라가는 여름엔 짧은 소매의 옷을 입은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고 5도 정도 되는 겨울에는 두꺼운 동복을 입는다.

(2) 전통의상

쿠르드족의

전통의상은 남성의 경우 밑 위 길이가 긴 검은색 바지로 허리띠를 착용하는데 이러한 의상은 산악지방에서 거주했던 쿠르드인들의 특성을 반영한다. 시골마을에서는 아직도 쿠르드 전통 의상을



입고 생활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지만 현대화가 진행됨에 따라 도시에서 일상적으로 입지는 않으며 공공장소에서 입는 것은 관례상 금지되어 있다. 결혼식에선 일반적으로 우리와 같은 서양화된 웨딩드레스와 턱시도를 입지만 시골 마을에서는 쿠르드족의 전통 혼례를 볼 수 있다.

4) 주거

시리아인들의 주거형태는 종족 전통보다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대부분의 도시 거주민들은 사방으로 발코니가 나있는 3~ 5 층의 연립주택형태의 가옥에 거주하며 부유층 들은 사하트말키(Sahat Malki)나 아부로마냐(Aburo Many)등의 부촌에 단독주택형태로 거주한다. 시골도 비슷한 형태를 보이나 쿠르드 종족이 모여 사는 알레포, 이프린(Afrin)의

시골마을 같은 경우는 주로 큰 돌들을 이용해 시멘트 같은 것으로 지은 단층 내지 복층 집에 거주한다. 빈민층 가옥의 경우에는 건물에 마감처리를 온전히 하지 않아 철근이 그대로 외부로 드러나는 등 미완공 건축물들이 보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것은 건물의 외관을 위한 마감재 구입비용이 그들의 소득수준으로 감당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이다.

가옥의 내부 구조는 거실과 응접실이 구분되며, 부엌과 화장실, 여러 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천장이 높고 벽지를 사용하기 보다 페인트로 벽면을 칠해 놓은 경우가 대다수이며, 온돌이 아닌 디젤 난로나 전기 히터, 온풍기 등으로 난방을 하기 때문에 냉기가 올라오지 않게 바닥에 카펫을 깔아 놓는다. 에어컨 같은 냉방시설을 사용하는 집은 드물며, 주로 선풍기를 이용한다.

한국의 가옥과는 달리 대부분의 시리아인들의 집에 가면 욕실 외부에 간단한 세면대가 있다. 이는 모래바람이 잦은 중동 지역의 기후적 특성에서 기인한다. 침실에서는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자는 경우가 드물며 침대나 매트리스를 사용한다.

쿠르드 종족 만의 특유한 주거 문화는 존재하지 않으며 시리아의 전반적인 상황과 동일하다.

5) 위생의료

(1) 위생 정책

사회보장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공산국가인 시리아에서는 의료, 수도 등의 공공서비스가 무료이거나 매우 저렴한 가격에 공급된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립 병원은 각 무하파자(한국의 도)나 대도시에 위치하고 있다. 사립 병원이나 개인 의원에서도 진료가 가능하지만 시설에 따라 천차만별의 의료 수가를 지불해야 한다. 약품은 정부에서 각 도시로 보급하는 체계로 운영되며 유사시의 응급 전화번호는 110이다.

(2) 수자원 공급

국가에서 운영하는 수도국이 무하파자(도(都))마다 한 개씩 존재한다. 그렇지만 일부 쿠르드 족 집단 거주지역에는 수도, 전기 등의 공공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며, 이들은 자체적으로 이러한 공공서비스를

대체한다.⁴⁵

6) 환경

현장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리아의 환경 상황은 점차 악화되고 있다. 정부 차원의 환경 보호를 위한 투자가 미비하며, 시리아인들의 환경 보호 의식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시리아 내에서 하수 처리나,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개념은 존재하지 않으며, 주된 하수 처리 방법은 하천에 방류하는 방식이 주류를 이룬다. 쓰레기 처리도 단순 매립을 하고 있다.

시리아는 건조 기후이며 여름 갈수기에는 수도인 다마스쿠스에서도 때때로 단수가 될 정도로 수자원 부족 문제가 발생한다. 시리아의 주요한 수자원 공급원은 시리아 동북부를 경유하는 유프라테스강과 오르테스강이지만, 이들 강의 수원이 터키에 있기 때문에 하천 상류에서 댐을 건설하려는 터키와 이를 저지하려는 시리아 간의 수자원을 둘러싼 갈등이 심각하다.

7) 교통

(1) 자가용

시리아는 정부차원에서 개인용 자동차 구입에 대해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는 등 개인의 자동차 구입을 규제해왔지만 아사드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한 2006년부터 규제가 점차 완화되었다. 그리하여 개인의 자동차 구입이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으며, 지금은 다마스쿠스를 비롯한 여러 주요 도시에서는 교통난과 대기오염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대도시에서는 도시 빈곤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가정이 한 대 이상의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다.

(2) 대중 교통

시리아인들의 발이라고도 할 수 있는 세르비스(Service, Micro bus)는 한 지역 이내나 가까운 시외를 담당하는 교통수단으로 현지인들이나 외국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가장 흔한 대중교통수단이다. 비용은 한 지역 이내의 구간에서 한 자리당 10SP, 가까운 시외는 그

⁴⁵본 조사팀이 방문했던 이프린의 키마르(Kimar)라는 마을은 정부로부터 물이 공급되지 않아서 빗물을 받아서 사용한다고 한다.

거리에 따라 책정되며, 승객이 자리를 차지한 만큼의 돈을 내야 한다. 또한 세르비스가 운행하지 않는 지역은 택시를 이용하거나 세르비스를 임대하여 이동하기도 하며 임대차 가격은 일반적으로 세르비스를 이용할 때보다 비싼 편이다. 시리아에도 역시 시내 버스(Bus)와 시외 버스가 구분되어 있다. 시내버스는 구 소련에서 도입한 낡은 버스가 주류를 이루었지만, 최근에는 한국의 시내버스와 비슷한 외관을 갖춘 현대식 버스가 늘어나고 있다. 시외버스는 도시의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한국의 시외버스와 비슷한 외관을 가지고 있다. 비용은 거리와 시외버스 회사에 따라 상이하다.

8) 대중매체 보급률

(1) 전기 보급 상황

시리아내에 13개의 전기회사가 있어서 전기 보급이 잘 되어있지만 공급이 일정하지 않고 정전이 잦다. 여름 저녁때는 시내인 다마스쿠스에서조차도 정전이 잦은 편이다. 일부 쿠르드족 집단거주지에는 국가에서부터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가정에 따라 전력을 사용하지 않거나, 가정에서 자체적으로 소형 디젤 발전기를 보유하고 있는 집들이 있다.

(2) TV와 위성방송 보급률

시리아의 TV 보급률은 높은 편이다. 시리아 이들은 주로 위성방송을 많이 시청하는데, 보통 1000여 개의 채널들이 나오며 거의 모든 방송은 레바논에서 송신한다.

설치 비용은 5000SP(한화 약 10만원) 정도이고 이 비용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경우가 많다. 이라크 북부의 쿠르드 자치 정부에서 실시하는 쿠르드어 방송도 시리아 전역에서 위성 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으며 10개 정도의 채널이 있고 한 위성당 약 7~8개의 채널이 있다.



(3) 컴퓨터와 인터넷

정보 통신 기술에 관심이 높은 아사드 대통령의 영향으로 시리아에서는 컴퓨터 보급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보 통신 기반 시설의 확충은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시리아에서는 아직도 초고속 인터넷이 존재하지 않으며, 일반 가정집에서는 전화선 MODEM을 연결하여 인터넷 서비스 회사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카드(텔레폰 카드의 개념과 비슷한)를 구입하여 인터넷을 사용한다. 시내에서 빠른 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카페에 가는 것이 좋고 인터넷 카페는 대학가나 시내 중심가에서 찾을 수 있는데 가격은 한 시간당 20SP 정도이다.

9) 요약

시리아 내에는 쿠르드를 제외하고도 드루즈(Druze), 알라위(Alawite), 이스말리(Ismali)등 수많은 소수 종파가 존재한다. 그렇지만 이들 각 종파와 거대 종파인 수니파 사람들간의 생활 양식에는 커다란 차이가 없으며, 일반적으로 쿠르드 인의 생활보다는 시리아인이라는 한 집단으로 묶는 것이 합리적인 분류가 될 것이다. 많은 쿠르드인들이 빈민층이기 때문에 수도와 전기와 같은 공공서비스에서 배제된 사람들은 최소한의 살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쿠르드인을 대상으로 한 선교의 접촉점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빈민층이 많은 쿠르드인들의 생활에서의 일차적 필요를 채우는 것이 쿠르드 선교에서 첫 번째 단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6. 문화분야

1) 개요

시리아는 중동의 여유롭고 느긋한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한국과 비슷한 동양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 또한 어른을 공경하고 가족 및 친족과의 유대관계를 중시하는 등 집단 문화가 발달 되어 있다. 또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체면문화와 대접문화가 잘 발달되어 있어서 외국인 여행자들을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식사와 차를 대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쿠르드 종족의 문화 역시 시리아의 문화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정부의 쿠르드 종족 차별 정책에 따라 몇 가지 특징을 보인다. 수도, 전기와 같은

공공 서비스를 배제, 쿠르드인 집단 거주 장소를 제외한 공공장소에서 쿠르드인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의복 착용 금지, 음식 조리 금지, 쿠르드 전통 혼례 금지 등의 문화적 억압이 존재한다.

2) 춤과 음악

시리아에서는 아랍민족 특유의 음악이 잘 발달되어 있는데 피리소리와 리듬을 맞추는 타악기를 사용한 흥겨운 음악이나, 기타와 비슷하게 생긴 전통 악기를 사용한 음악들이 바로 그 예이다. 또한 대중 매체를 통한 대중음악의 인기가 매우 높는데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큰 화제거리로 옷이나 헤어스타일을 따라 하는 것 등이 유행이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나이트클럽이 있는데 주로 여성들을 위한 곳이라고 한다.⁴⁶

3) 특수 절기

(1) 공휴일

시리아의 공휴일은 국가 공휴일인 4월 17일 독립기념일, 3월 8일 바트(Baath) 혁명일과 무함마드(Muhammad)의 생일이 대표적이다. 쿠르드인 만의 특별한 공휴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2) 축제

쿠르드종족의 대표적인 축제는 3월 21일로 나루즈(Newroz)이다. 쿠르드 사람들은 이 날을 새해 첫날로 삼고 만물이 소생하고 생명이 부활하는 날을 기념하는 것으로 자유를 상징하기도 한다. 전세계의 쿠르드인들이 모두 즐기는 축제로 이 날에는 도시를 초록, 빨강, 흰색으로 장식하고 쿠르드만의 전통적인 춤과 노래로 축하한다.⁴⁷ 현지에서 만났던 쿠르드 사람들이 지난 3월21일에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었는데 쿠르드 전통의상을 입고 각자의 고향에서 친척들과 함께 어울려서 춤을 추고 음식을 나누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4) 결혼과 출산

⁴⁶ 현지 여대생 H와의 인터뷰 참조.

⁴⁷ http://forminority.net/home/?mid=pds&page=1&document_srl=553(검색일자 2009년 1월 30일)

(1) 결혼

아랍 여성들은 대부분 14살에서 20살에, 남성은 25살 즈음에 결혼한 것이 일반적으로 여성의 경우 20살이 넘으면 결혼 적령기를 놓친 것으로 간주한다. 쿠르드족 여성들은 21살부터 23살이 결혼 적령기로 27살에서 29살의 남성을 만나 결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부분 쿠르드족끼리 결혼하며 여성이 연상이고 남성이 연하인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2) 출산

시리아의 국립병원은 국가가 운영하기 때문에 무료로 진료받을 수 있지만 산부인과는 사립병원에만 존재한다. 사립병원은 비싼 진료비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아랍 여성들은 집에서 출산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다산의 풍습을 가지고 있던 쿠르드족은 4-5명의 자녀를 낳는 것이 일반적이며 다산은 풍요의 상징이라고 생각한다.

5) 예절

(1) 일반예절

만날 때 가장 일반적이고 공식적인 무슬림들의 인사인 ‘쌀라무 알레이쿰’, 혹은 조금은 가벼운 ‘마르하반’ 이라고 인사하고, 헤어질 때 ‘마아쌀라마’ 이라고 인사한다. 특별히 반가운 사람을 만났을 때는 볼에다 서로 입을 맞추는 인사를 하는데, 동성간에는 오른쪽 볼 한번, 왼쪽 볼 한번, 다시 오른쪽 볼에 한번 입을 맞추고, 이성간에는, 오른쪽 볼에만 세 번 입을 맞춘다. 또한 자신의 겸양을 표현하기 위해 오른손으로 왼쪽 가슴에 손을 살짝 대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좀 더 겸손하게 반가워함을 표현하기 위해 손등을 입술에 대고, 이마에 대는 인사를 하기도 한다.

(2) 쿠르드족 호칭

쿠르드족은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가족 내에 호칭이 존재한다. 아빠는 버블, 엄마는 야디, 할아버지는 바비루, 할머니는 뽀띠루 또는 바비루라고 부르며 자신의 부모님의 이름을 자녀들 중 한 명의 이름으로 짓는 것이 관례이다. 가족들간의 끈끈한 유대관계를 엿볼 수 있으며 결혼한 후에도 분가하지 않고 같이 사는 가족을 흔히 볼 수 있었다.

6) 대중문화

(1) 청소년 문화

TV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TV드라마의 주인공이나 가수 등을 좋아하고 따라 하는 것을 쉽게 관찰할 수 있었다. 최근에는 인터넷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채팅이나 메신저를 통한 또래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

(2) 캠퍼스 문화

본 조사팀이 알레포 대학을 방문했을 때, 많은 남성과 여성이 친구처럼 함께 어울리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고 수업이 마치면 아르바이트나 방과 후 공부를 하는 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비슷했다. 또한 남성의 경우 학교 안에서 당구를 치거나 함께 운동을 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대학 간에도 우열이 존재하는데 시리아 최고의 대학은 수도의 다마스쿠스 대학이고 두 번째 대학은 알레포 대학이라고 한다.

7) 관광지⁴⁸

(1) 팔미라(palmyra)



팔미라는 수도에서 동북쪽으로 240km 떨어진 곳에 있는 시리아의 대표적인 유적지이다. 광대한 사막지대의 한 가운데에 있는 화려한 유적지는 나바티안⁴⁹과 로마 시대의 유적들이다. 약 16만평에 달하는 팔미라는 B.C. 1600년부터 사람들이 살았으며 B.C. 2000년경에는 마리아왕국이 이곳을 다스렸다고 한다. 이 후 중요한 무역로로 발전되어 계속해서 부와 영화를 누리고, 특히 오테나투스(A.D. 252-260) 시대에 전성기를 누렸다. 하지만 그의 아내 제노비아의 정치적인 야욕과 욕심은 팔미라가 몰락하는 계기가 되고 결국 로마 황제 아우렐리우스에 의해 폐허가 된다. 현존하고 있는 벨 신전은 태양신을 숭배하던 신전으로 바빌론과 아카드의 신이다. 1930년에 와서야 발굴과 복원 작업이 이뤄졌으며 시리아 최대 관광지로 꼽

⁴⁸ 박혁주, 이지영, 성경의 땅 (서울: 쿤란출판사, 2006), p184-232

⁴⁹ 아라비아 북서부에 거주하던 유목민.

히고 있다.

(2) 보스라(Bosra)



보스라는 수도에서 남쪽으로 115km정도 떨어져있는 지역으로 앞서 언급한 나바티안 왕국의 수도로 아라비아 주의 중심지로 교육과 산업 및 무역의 중심지로 발달했다. 특별히 검은 현무암으로 세워진 성채와 로마가 세운 원형극장이 유명한데 세계에서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로마의 원형극장으로 알려져 있다. 이곳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후,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 까지 3년 동안의 시간을 보낸 곳으로 추정된다. 또한 무함마드(Muhammad)가 수도사인 바히라(Bahira)를 만나서 선지자로서 신의 계시를 받은 지역으로 최초로 시리아에서 이슬람교를 믿은 지역이다.

(3) 크락 데 슈발리에(Krak Des Chevaliers)



크락 데 슈발리에에는 다마스쿠스에서 223km, 홈즈에서 65km 떨어진 해발 750m 칼릴 산 정상에 있는 성채로 9세기 십자군의 성채 중 유일하게 원형 그대로 보존이 잘 되어 있는 성채이다. 크락 데 슈발리에에는 ‘기사의 성채’라는 뜻으로 5층 규모로 남북이

200m, 동서가 140m나 되며 면적만 해도 1만 평에 이르는 대규모 성채이다.

8) 요약

일반적으로 시리아 사람들은 손님을 중요하게 여기고 극진히 환영하며 대접하는데, 실제로 현지인들은 안면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팀을 반갑게 환영하고 맛있는 음식과 샤이(Shai) 등으로 대접해주었는데 이것

역시 무슬림의 대접하는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지인과의 인터뷰에 의하면 그들은 미국과 서방세계에 대한 반감은 존재하지만 TV를 통해 헐리웃 영화와 미국 드라마 등을 즐겨 본다고 한다. 이는 현재 시리아의 개방화와 서구화 과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7. 교육분야

1) 개요

시리아는 전체적으로 교육열이 높은 편이다. 초등학교(Primary School)부터 중고등학교(Secondary School)까지 무료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는다. 또한 수능 시험인 바칼로리아(Bachelor)의 성적대로 의대, 공대 등의 순으로 진학하는데, 대학의 수준이 높아서 수단, 요르단, 중국, 일본 등에서부터 온 많은 외국인들이 입학 혹은 편입한다고 한다. 쿠르드족의 경우 사회적 편견을 깨고 성공하는 길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길이기 때문에 남녀 차별 없이 학업에 전념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2) 현황

(1) 교육 체계

시리아는 6년의 초등교육(primary education)과 3년의 중고등교육(secondary education)이 의무 무상 교육이다. 학령기 이전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유치원 교육이 존재하지만, 일반적이지 않으며 집에서 부모님 혹은 나이 많은 형제들로부터 기본적인 부분을 교육받는다. 대학교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어느 정도의 학비를 지원해주지만 한 과목당 3000리라 정도를 지불 해야 한다. 일년에 대체로 12과목 정도를 수강하고 그 과목이 fail할 경우 1500리라에 다시 팔 수 있다고 한다⁵⁰.

(2) 초 중등교육

⁵⁰ 현지인 H와의 인터뷰 참조.

시리아의 공립학교는 한 반의 정원이 40명이고 사립학교는 20명으로 남녀 성비는 약 1:2 정도라고 한다. 인터뷰했던 A(쿠르드, 14세)에 의하면, 자신의 학교인 Baptist Evangelical School은 사립학교로 남녀공학이 아니며, 여자는 7시 12시까지 수업하고, 남자는 8시부터 1시 45분까지 수업한다고 한다. 또한 수강하는 과목은 수학, 물리, 화학, 영어, 아랍어, 프랑스어, 철학, 과학, 지리, 역사, 법, 체육이다.

시리아는 교육열이 높은 국가 중 하나로 대학 정원이 많지 않고, 일정 부분 국가에서 학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입시 경쟁이 치열하고 재수를 해서 대학에 가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3) 인식

시리아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교육열이 매우 높은 편이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것이 높은 수입을 보장하기 때문에 의사 및 엔지니어에 대한 인식이 좋다. 교육열은 도시와 농촌에 관계 없이 높은 편으로 키마르(kimar)라는 시리아 북쪽에 위치한 쿠르드족 마을에 방문했는데 매우 낙후된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가 존재했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모두 학교에 다닌다고 했다. 또한 공부를 많이 한 직업이 사회에서 더 좋은 대우를 받는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생계가 어려워도 자녀 교육에는 열성적이다.

4) 대학



(1) 대학 교육

시리아에는 소수의 대학교가 있고, 각 대학별로 특성화된 학과가 존재한다. 알레포 대학의 경우, 엔지니어와 건축학과가 높은 성적이 요구되었고 그 규모가 매우 큰 편이다.⁵¹ 대학교 입학시험은 240점이 만점으로 의대나 공대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230점 후반의 성적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와 같이 장학금 제도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240점을 받은 수석 학생에 한해서 학교를 다닐 동안 한 달에 약 2000리라의 용돈을 지급한다고 한다.

또한 단과대별로 정규과정이 다른데 의대의 경우 6년, 사범대의 경우 5년 동안의 교육과정이 있다. 성적이 우수한 5명 학생에게는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의 대학에서 교환학생으로 수학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2) 대학 생활

본 조사팀이 방문했던 알레포 대학의 경우, 타 지역에서 많은 학생들이 유학을 오기 때문에 기숙사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었다. 현지인 H와의 인터뷰에 의하면 기숙사를 신청할 때 자신이 룸메이트를 선택할 수 있는데, 대부분 지역별, 종족별로 선택한다고 한다. 또한 한 방에 7-8명이 살고 1년에 4000리라 정도의 기숙사비를 낸다.

학교 안에는 학생들의 편의를 돕는 카페테리아, 당구장, 농구장 및 은행과 같은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쉴 수 있는 벤치와 나무도 많다.

(3) 졸업 후 진로

대부분의 남성은 졸업 후 전공에 따라 취업한다. 또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군 복무가 의무로써,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이 증명되면 연기가 가능하다. 졸업 후 군대를 가기도 하는데 대학에서 공부했을 경우 1년 9개월, 그렇지 않을 경우 2년 3개월의 군역이 존재한다. 가장 선호하는 직업은 의사 및 약사와 엔지니어이다. 여성의 경우, 졸업 후에는 결혼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의사, 선생님과 같은 전문직은 직업을 갖기도 한다.

쿠르드족의 경우, 직업관이 시리아 문화에 많이 동화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직업을 선호하지 않고 의사와 엔지니어가 역시 높은 대우를 받는다고 한다.

⁵¹ 인문대학의 경우 심리학, 영어학과, 아랍어학과, 프랑스어학과, 지리학, 역사학, 고고학의 7개의 학과가 존재하고 약 28000명 정도의 학생이 다닌다고 한다.

5) 요약

시리아는 교육열이 높은 국가이다. 중고등학교(Secondary School)에 다니는 10살 남짓한 학생들도 시험 전 날 밤을 새는 등 우리나라와 비슷한 입시 풍경을 볼 수 있다. 사회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전문직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학업에 열중하고 사교육도 잘 발달되어 있다. 쿠르드족 역시 일반 시리아인과 비슷한 직업관을 가지고 있었으며 여성도 결혼 후 직업을 가지는 것을 종종 확인할 수 있었다.

8. 종교분야⁵²

1) 개요



시리아의 74%가 수니 이슬람교이고 약 16%가 드루즈 종파나 알라위 종파와 같이 이슬람의 이단 종파에 속한다. 그리스 정교회와 카톨릭, 알메니안 교회 등 전통교회를 믿는 사람들과 극소수의 개신교인이 약 10%이며 알 캄솔리와 다마스커스에 일부 유대인도 살고 있다.⁵³

시리아 쿠르드인들은 99% 정도가 무슬림이며 0.013%정도가 크리스천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2) 종교현황

쿠르드인의 99%가 무슬림들이다. 소수 종교 중에는 3만의 네스토리우스 기독교, 앗시리아 기독교, 흔히 ‘악령 숭배자’로 알려진 4-5만 정도의 예지드파 등이 있다. 종파로는 대부분이 순니파이고, 4대 순니학과 중 사피학파가 절대다수이다. 수십만에 달하는 시아파 계통의 “알라위파”가 주로 데르심, 엘라지그, 마라스 등지에 거주하는데, 그들은 초기

⁵² 이희수, “쿠르드인의 종교생활”, [한양대학교 민족학 연구소] 제6권(1997)

⁵³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print/sy.html>(검색일자 200년 1월30일)

이슬람역사의 4번째 칼리프인 알리를 추종하는 무리들이다.

또 이슬람 신비주의 계통의 수피종단이 쿠르드 지역 전역에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다.

3) 종교특징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에 걸쳐 살아 왔던 쿠르드인들은 오랜 역사적 축적과 공간적 문화수용으로 나름의 독특한 종교관과 전통신앙을 형성해 왔다. 특히 이슬람을 받아들인 이후에도 중앙아시아의 지역적 연고와 유목과 목축이라는 삶의 패턴이 빚어낸 전통적인 종교의식이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이슬람이라는 옷을 걸치게 됨으로써 절충되고 혼합된 종교의식과 관념이 쿠르드인들에게 새로운 종교세계를 형성해 주었다. 그러나 쿠르드인들의 민간신앙은 지역에 따라 다소 상이한 차이를 보이고, 이란의 문화적 배경이 두드러지는 것이 특징이다.

쿠르드인 대부분이 무슬림이 되었지만, 그들의 삶과 의식속에는 다른 이슬람 집단들과 확연히 구분되는 특징이 보인다. 그것은 토착적인 전통과 이슬람을 잘 조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은 종교지도자의 설교보다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조상들의 영웅담을 노래 가락에 맞추어 읊어주는 방랑시인들을 열광적으로 환영하며 그의 말에 도취되었다. 남녀가 서로 내외하는 전통적인 이슬람 사회와는 달리 쿠르드인들에게 남녀가 함께 어울려 춤추고 노래하는 것은 거의 일상화 되어있다. 특히 쿠르드인들은 이슬람의 틀 속에 얽매이지 않고, 소아시아에서 출발한 “다신교적 성향”을 보이면서 여러 다양한 민간 습속을 오랜 역사 속에서 계승해 왔다.

4) 종교의식

쿠르드인의 할레는 이슬람교의 종교적 관습이 토착화되어서 쿠르드인들의 고유한 문화에 상당 부분 이입되어있다. 즉, 이슬람적인 요소와 쿠르드만의 고유한 요소를 구분하기 어려운 정도가 된 것이다. 종교적으로는 신체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더러워지기 쉬운 부분을 청결히 하여 신 앞에 깨끗한 심신으로 다가간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동시에 할레는 대규모 축제로 발전하면서 쿠르드 공동체의 정체성과 결속력을 높이는 사회적 순기능이 매우 강하게 작용한다. 평소 느슨해진 친족관계와 이웃간의 서먹함이 해소되고, 어머니의 사회성과 아버지의 정치력이

평가되는 계기가 된다.

장례 의식에 있어서도 쿠르드족은 이슬람교나 터키사회의 일반적인 장례풍속과 뚜렷이 대비되는 특징을 잘 보여주는데 대표적인 특성으로 통곡과 광란에 가까운 슬픔의 표현, 장례에서의 말과 같은 동물의 등장, 더욱이 신분의 차이에 따르는 장례습속의 구분 등과 같은 특성을 들 수 있다. 특히 쿠르드인은 금요일 전에 절어서 죽은 남녀의 묘소나 예언자 무함마드의 혈통을 이은 사이드(Sayyid)의 묘소에 촛불을 밝히는 풍습이 있다. 또 어떤 터키 중부의 쿠르드인들은 묘지 옆에서 3일간 꾸란 전 구절을 낭송하는데 이는 고인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는다는 믿음에서 행하는 것이다.

5) 종교적 감수성

쿠르드인들은 일반적으로 독실한 무슬림들이고, 역사적으로도 지배국가에 충성하면서 고명한 이슬람 학자나 정치인들을 많이 배출하였다. 십자군 전쟁의 영웅인 살리딘 아유비가 바로 쿠르드인 장군이었고, 16세기 오스만 제국과 이란의 사파비조가 치열한 대치를 계속할 때, 쿠르드인들은 같은 이슬람 순니파인 오스만제국을 도와 이란의 시아파를 공격함으로써 혁혁한 공적을 세웠다. 19세기말에는 오스만 제국의 술탄 압둘 하미드 2세가 제창한 범-이슬람운동(Pan-Islamism)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반 서구 투쟁의 전위대로 활동하였다. 한편 정통 순니파와 함께 이란과 중앙아시아 일대의 쿠르드인들은 이슬람 신비주의 종파인 수피즘과 이단 종파인 예지드파에 탐닉하기도 했다.

6) 정치와 종교의 연관성

쿠르드인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쿠르드인들이 살고 있는 나라마다 쿠르드인들의 정체성을 약화시키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문화와 전통을 지켜왔고 거기에 있어서 종교가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종교 사원이나 종교지도자가 생기게 되었다.

쿠르드 마을에 있는 사원은 ‘몰라(Mollah)’라 불리는 종교지도자가 종교 교육이란 보호막속에서 터키 당국의 감시를 피해 쿠르드 문학교전을 공공연히 가르쳤다. 이런 점에서 ‘몰라’들은 쿠르드 전통마을에서의 사회-문화적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존재로 부각되었다. 실제로 그들은

1950-1960년대 쿠르드 이익을 위한 터키 당국과의 대결에서 쿠르드 대중을 인도해 가는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곧 바로 터키 정부의 대응을 초래하여 1965년 이후 모든 꾸란학교와 사원의 종교 지도자들이 중앙에서 임명하는 월급제 ‘관제관리’로 전락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터키체제의 틀 속에서 종교적 역량을 배가하고 있는 터키 최대의 이슬람종파인 ‘누르주(Nurcu)’내에도 쿠르드인들이 상당히 깊숙히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표면적으로 이슬람이라는 공통의 가치를 강조하지만, 쿠르드인 종교 지도자였던 베디유자만 사이드 누르시를 추종하며 조심스럽게 쿠르드 민족의식을 키우고 있다.

7) 요약

대부분의 쿠르드인들은 매우 독특한 신앙체계를 갖고 있다. 이슬람과 전통신앙의 결합이라는 보기 드문 조화를 일상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투영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획일화되어 있는 중동의 다른 무슬림 종족들에게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다. 충실한 무슬림으로 살아가면서, 오랜 역사성을 가지며 주변 문화의 적극적인 수용의 결과로 정형화된 자신들의 문화를 유감없이 드러내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쿠르드족은 그들이 살고 있는 국가의 요구에 의해 반강제적으로 이슬람교로 개종하였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일반 아랍 무슬림과 달리 쿠르드족 고유의 문화나 전통들을 지키는 것으로 보아 그들이 이슬람교를 선택적으로 수용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또 이슬람교가 발흥하기 이전에는 쿠르드인 중에 상당 수가 기독교인이었다는 점을 생각해볼 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9. 기독교 상황

1) 기독교 개요

시리아는 중동지역에서 복음의 문이 비교적 많이 열리고 있는 나라 중 하나로 특히 2000년부터 쿠르드족을 위한 많은 단기, 장기 선교팀이 파송되었고 중보기도모임이 활성화 되어 있다. 현재 쿠르드족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단계라기보다는 추수하는 단계로 많은 쿠르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의 배경에는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과 정부의 억압 및 차별로부터 오는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2) 기독교 현황

(1) 종족언어 성경: 있음

(2) 종족언어 “예수”영화: 있음

(3) 종족언어 기독교 방송매체: 있음(북부 이라크)

(4) 교회수, 교인수, 목회자수, 선교사수: 시리아에는 쿠르드만을 위한 교회가 없으며 쿠르드인이 출석하는 교회는 있다. 쿠르드만을 위한 교회는 북부 이라크의 쿠르드 자치지구에 있다고 한다. 시리아에는 약 55개의 개신교가 있고 본 조사팀이 방문했던 알레포 침례교회의 경우 약 30명 정도 주일 저녁 예배에 참석하고 계속해서 부흥하고 있다고 한다.

3) 기독교 인식

쿠르드족은 비교적 기독교에 열려 있는 종족으로 그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 번째 이유는 종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종교가 다른 쿠르드족 간에도 연합하는 것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쿠르드족을 억압하는 기독교 세력이 대부분 무슬림이기 때문에 많은 쿠르드인들이 이슬람교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기독교에 관해 큰 거부감이 없다고 할 수 있다.⁵⁴

4) 요약

⁵⁴ 쿠르드인이자 무슬림 O는 한 나라에 살고 있는 정부조차 자신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데, 먼 나라에 살고 있는 한국의 크리스천 대학생들이 자신들의 존재에 관심을 가지고 시리아에 왔다는 것에 대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것은 그들의 1차적인 관심이 종교가 아니라 쿠르드 정체성임을 분명히 나타낸다.

현지 아랍목사님 M과의 인터뷰에 의하면 현재 쿠르드인에게 복음의 문이 많이 열려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교회에 방문해서 크리스천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등을 묻는 무슬림들의 발걸음이 매주 끊이지 않고, 꿈과 환상에서 예수님을 보고 교회를 찾는 무슬림들도 있다고 한다. 오랜 시간 동안 정부와 아랍민족으로부터 핍박 받아 온 마음이 가난한 쿠르드족에게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교제했던 두 분의 선교사님 역시 최근 수많은 쿠르드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음을 말씀하셨다. 이와 같이 우리는 십자가를 향한 쿠르드인의 행렬이 끊이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다.

IV. 시리아의 현재 이슈들

1. 이스라엘 - 팔레스타인의 전쟁에 따른 혼란

1) 현재상황

2008년 12월 27일 이스라엘은 가자지구(Gaza Strip)를 공습했다. 가자지구를 점령하고 있는 이슬람 저항운동 단체인 하마스(Hamas)⁵⁵도 이스라엘에 로켓탄을 발사하면서 전쟁이 시작되었고 29일 전면전을 선포하면서 공습이 계속되었다. 7일 중동 순방을



마친 니콜라스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을 통해 휴전협정이 맺어졌지만 여전히 그 분쟁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전쟁이 계속되자 국제사회의 지원과 평화의 요청 및 협력이 계속되었고, UN과 유럽 각국의 정상들은 영구휴전을 제의했으며, 국제 NGO 역시 휴전을 촉구하며 인도주의적 물품 지원에 나섰다. 21일 현재 가자지구의 사망자 수는 1,300명을 넘었고 도시의 약 14%의 건물이 훼손되었다.

2) 테러의 위협과 시리아 국내의 혼란

시리아는 반 시오니즘 노선을 추구하는 대표적인 국가로 현 시리아의 대통령인 바샤르 알 아사드는 아랍연맹의 의장이다. 또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인 하마스(Hamas)의 수장이 타 국가로 도피할 경우, 가장 유력한 국가가 바로 시리아인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시리아에 대한 이스라엘의

⁵⁵ 하마스는 ‘용기’라는 뜻으로 반(反) 이스라엘 무장저항단체로 1987년 아흐메디 야신 등이 결성했다. 팔레스타인 전역에 이슬람 국가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투쟁하면서 2006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총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가자지구를 점령했다.

무차별 폭격도 예상할 수 있다.⁵⁶ 한편 시리아는 하마스와 헤즈볼라(Hezbollah)와 같은 테러조직을 직,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국가로 알려져 있다.

이스라엘이 전면전을 선포하자 많은 아랍 국가에서 시위와 데모 행렬이 끊이지 않았다. 이라크, 이란, 터키 등에서 수 천명이 동원되는 시위가 발생했고, 시리아 역시 다마스쿠스와 알레포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시위와 집회 등이 일어났다. 관제데모의 형식으로 그 수위가 심각하게 위험한 정도는 아니었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사람들의 불만은 계속해서 심각해지고 있다.⁵⁷ 또한 시리아 국기가 게양되어 있는 곳 옆에는 대부분 팔레스타인 국기가 함께 게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것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시리아 사람들의 정서와 유대관계가 매우 밀접함을 보여준다.

또한 언론에서는 가감 없이 전쟁의 실상을 폭로하면서 하루 24시간 연속적으로 가자지구의 피해와 폭격 맞은 건물들, 피흘리고 부상 입은 어린이들을 방송했다. 21일간 리서치 기간 중 TV에서 봤던 프로그램들은 한결같이 가자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에 관한 것이었다. 이러한 것들은 결과적으로 반 이스라엘 감정을 증폭시켜서 국내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2. 정부의 쿠르드종족 차별 법령 발표

1) 대통령 법령(Presidential decree) 발표와 그 결과

2008년 9월 10일 대통령 법령(Presidential decree)49항이 발표되었다. 그 내용은 토지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터키 국경부터 45km에 해당되는 지역 즉, 터키와 시리아 국경, 하사케(Hassaka), 라까(Ar-Raqqqa)와 알레포(Aleppo)지역의 땅의 소유 및 매매를 금지하도록 했다.⁵⁸ 더 이상의 토지 점유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 상속인에게 유산으로 남겨 줄 수도 없다. 거주하면서 매매를 원하는 사람들은 4곳의 Security center(Politic, Security, military, air force)와 2곳의 정부의 행정기관(ministry of

⁵⁶ J선교사님 인터뷰 참조.

⁵⁷ 현지 목사님과의 인터뷰에 의하면 시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관련된 작은 것 하나까지도 혐오할 정도로 이스라엘에 관한 반감이 매우 높다고 한다. 또한 공공장소에서 외국인이 이스라엘에 대한 정보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로 대부분 ‘남쪽나라’, 혹은 ‘디즈니랜드’라고 부른다.

⁵⁸ <http://www.kurdmedia.com/article.aspx?id=15179>(검색일자 2009년 2월 4일)

defense, ministry of interior)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이번 법령에 반대하던 Kurdish AZADI당에 속한 쿠르드족 정치인 Muhanned Said와 Saun Shekho는 10월 26일 체포되었고, 29일에는 ‘Damascus Declaration’이라고 불리는 열두 명의 정치인들이 징역을 선고 받았는데 그 이유는 공개적으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민주적인 개혁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러한 진압은 국제 사회로부터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시키고 있다. 국제적인 인권 단체인 Society for Threatened Peoples(Gesellschaft für bedrohte Völker)은 시리아 정부가 쿠르드족의 기본적인 인권 조차 보장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2) 쿠르드족 차별에 대한 암묵적 동의

이 법령의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종족은 쿠르드족이다. 쿠르드인들은 이 법안이 쿠르드인들을 겨냥한 의도적인 법안이라고 반발하며 작년 11월에는 의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쿠르드인으로 토지 소유 및 매매를 금지함을 통해 지역 경제를 낙후시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아랍인들은 그 지역의 땅을 살 때에 까다로운 절차를 밟지 않지만 쿠르드 사람들에게는 엄격하게 적용되는 등 정부는 쿠르드 사람들의 경제활동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아랍 민족과 차별을 두고 있다.

시리아 북부 지방은 쿠르디스탄 영토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쿠르드족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아닐 수 없다. 이라크에 쿠르드 자치지구가 형성되어 있는 것처럼, 시리아 쿠르드족 역시 정부가 쿠르드족의 자치 독립을 인정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그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듯 하다. 시리아의 쿠르드종족은 약 150만 명으로 그 수가 많지 않고 사회주의 국가로 정부 감시가 심하며, 비밀 경찰 제도가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시리아 내에서는 약자이자 소수집단인 쿠르드족 대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인 차별이 암묵적으로 동의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쿠르드족 내부에서 자치 독립 및 쿠르디스탄에 대한 열망을 가중시키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V. 쿠르드 종족의 선교전략

1. 기존 선교 현황

1) 선교의 역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시대 이후로부터 레반트 지역은 성경의 주무대가 되어왔다. 레반트 지역의 선교역사는 사도행전 7장에 등장하는 스테반 집사의 순교 사건 이후 시작된 유대인들의 종교적 박해를 피해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시작되었다. 시리아는 구약시대 아람(Aram)이라고 불렸으며 성경에 수리아(Syria)라고 나온다. 아람은 셈의 아들의 이름으로 과거 아람의 후손들이 거주하던 곳을 아람이라고 불렀다.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위치해 이스라엘과 적대국으로 잦은 전쟁을 치르기도 했다. 시리아 지역의 초대교회에 대한 펍박은 그리스도인들을 지하교회로 밀어내었고 이슬람의 팽창과 함께 교회 역사는 표면적으로 막을 내리게 된다.

근대 초반 시리아의 선교활동은 영국인 선교사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19세기 초 영국인 목사 그레함과 알렌이 현재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다메섹)에서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시작으로 레반트 지역에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알 다다히나는 1860년 ‘복음주의 다마스커스 교회’를 설립하였고 다른 교단과 교회들의 활동이 뒤따라 일어났다.

그러나 7세기 이후로 이슬람의 세력이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시리아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더 나은 신앙생활을 위해 본국을 떠나야 했다. 이들은 무슬림 사회와는 격리된 집단으로 겨우 기독교의 명맥을 이어가는 처지에 놓였다. 특히 1957년 이집트가 수에즈 운하를 문제로 영국, 프랑스와 대립하자 이를 기회로 시리아 정부는 자국 내에 있는 선교사들을 모두 추방시켰다. 지금까지 시리아의 개신교인은 4~6천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들은 조상 대대로 호적에 종교가 기독교로 나오는 사람들로서 형식적이고 복음의 열정이 많이 식어버린 안타까움이 있다. 그래서 시리아의

그리스도인들은 무슬림을 복음화하는 전도의 사명은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정치적인 감시까지 받고 있는 쿠르드족에게 전도하는 것은 더욱 힘든 상황으로 보인다.

1970년 소수종파인 알라위 종파 출신인 하페즈 알 아사드가 쿠데타를 통하여 정권을 획득하게 된 이후 시리아는 사회주의 노선을 걷게 되었다. 하페즈 전 시리아 대통령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강력한 독재정치를 시행한다. 이 같은 상황은 시리아 교회에 가해지던 압박을 덜어주는 결과를 낳았고 다시 많은 선교사들이 시리아로 파송될 수 있었다.

한국에서는 1990년대 말 한 가정을 시작으로 2005년 이후로는 꾸준히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 최근에는 시리아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가하고 이 지역의 전략적인 의미가 더욱 부각되어 많은 중, 장기 및 단기 사역 팀이 시리아를 찾고 있는 상황이다. 2009년 현재 시리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장기 사역 가정은 15가정(인터콥 제외) 59 이다. 시리아 정부에서는 이와 같이 증가하는 한국인 가정에 대하여 현재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한다. 시리아 S 선교사님께서는 현재 시리아 비밀경찰들이 한국인 사역자들을 감시하고 있지만 그들이 이 곳에서 돈을 쓰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으며 아직까지 아랍어를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실제로 시리아에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여서 실질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하셨다. 실제로 2008년 겨울 시리아 북부 쿠르드족과 관련된 사역을 하러 온 단기선교팀을 도와준 장기 사역자 두 가정이 같은 해 5월 시리아 정부에 의하여 강제 추방 당하였고 한 가정은 입국을 거부당했다. 60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한국과 전세계 사역팀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 속이며 2009년에는 최초로 선교사님들과 시리아 개신교회가 힘을 합쳐 시리아에서 DTS 코스를 열 계획이라고 한다.

2) 국제 및 한국 사역단체(NGO 포함)의 활동현황

⁵⁹ 시리아 다마스쿠스 S선교사님과의 인터뷰 내용, 인터콥에서는 다른 선교단체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에게 인터콥 선교단체의 구체적인 현황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한다.

⁶⁰ 이 가정은 2008년 1월 단기선교팀을 만난 후 잠시 한국으로 돌아가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몇 달 지난 뒤 다시 시리아로 입국하려고 하였을 때에는 그들의 이름이 이미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어서 입국이 거부되었다. 시리아의 정보 시스템은 아직까지 전 지역 전산화 되지 못하여 각 지역의 정보들이 중앙으로 전해지기까지는 짧게는 몇주, 길게는 몇 달 이 걸린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교사 가정이 출국하는 당시에는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지 않았다.

시리아는 소규모 모임에 대한 비밀경찰들의 감사가 철저하므로 활동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현지에서 본인의 신분을 노출시킨 채 활동하는 선교사는 아무도 없으며, 만약 거주 이외의 활동이 발각 되었을 경우, 제재와 감시는 물론 추방과 같은 극단의 조치를 당할 수도 있다.

이곳에서는 비단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사역단체의 활동뿐만 아니라 종교적 색채를 띠지 않는 비영리 단체(NGO)의 활동조차도 금하고 있다. 이는 사회주의 국가인 시리아가 외국 문물들을 수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로 인해 시리아 내에 이라크 난민의 문제 등 자체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들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리아에는 국제적으로 OM, YWAM, IMB(남침례교), 프론티어즈, 소울 등에 속한 많은 선교사들이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다. IMB, OM, 프론티어즈 등의 선교단체가 연합하여 Shout for Joy Syria 기도운동을 전개할 2004년 당시만 해도 단 한 가정뿐이었던 한국인 선교사의 수 역시 지난 2005년을 기점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지금은 대략 11가정 정도의 선교사들이 현지에서 사역하고 있다. 현재 외국인 선교사의 수뿐만 아니라 한국인 선교사의 수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선교사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게 될 것이다.

3) 영적 상황

시리아는 정보부 요원이 시리아 전체 인구의 20%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모든 활동에 대한 정부의 감시가 심하다. 종교적으로도 시리아는 헌법상 이슬람 국가이므로 타종교의 포교 활동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다. 다만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알라위 종파가 이슬람의 소수종파여서 기독교와 같은 소수파 집단 사람들에게 우대 정책을 펴고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타종교의 종교적 모임과 활동에 대한 시리아 정부 요원들의 감시가 엄격하다.

이와 더불어 정치적으로 이들은 미국, 한국 정부에 대한 반감까지 갖고 있다. 미국 정부에 대한 시리아 정부의 태도는 오랫동안 그렇게 유지되어왔다 하더라도 한국 정부에 대한 이들의 태도는 주목 해볼 만 하다. 현지 선교사의 말에 의하면 한국 정부의 친미, 친 이스라엘 정책, 핵 문제 등으로 인해 한국은 시리아를 포함한 아랍 국가들에게 신뢰를 잃었다고

한다. 실제로 현지인이 비밀경찰에게 잡혀갔을 때 직접 이러한 말을 정보부로부터 들었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한국 선교사들이 시리아 내에서 사역하기란 쉽지 않다. 지난 2008년 5월에는 실제로 비자 연장을 위해 이민국에 갔던 선교사 두 가정의 그 자리에서 감금되어 강제 추방 당하는 일을 겪었고⁶¹, 또한 6월에는 공항에서 선교사 한 가정의 아무런 설명도 없이 입국 거부를 당하는 일도 발생했다고 한다. 현지 선교사의 말에 의하면 시리아 정부에서 한국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강제 출국이나 입국 거부와 같은 조치를 취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위와 같은 추방 사례로도 볼 수 있듯이 쿠르드 지역은 정부의 감시가 아주 심한 지역이다. 쿠르드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 중 하나인 캄술리에 있는 연합 교회의 목사님께서는 이 지역에 쿠르드인들이 70% 이상 살고 있지만 실제로 그들을 위한 전도전략은 가지지 못하고 있다며 30% 정도되는 캄술리의 앓시리안들을 중심으로 사역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쿠르드인들을 위한 여러 환경적인 상황은 좋지 않지만 성령님께서 서서히 그들의 부흥을 열어가고 계신다고 그 목사님을 말씀하셨다.

2. 쿠르드 종족 선교의 방해 요소

1) 종족 외부적 방해요인

(1) 비밀경찰

1970년 하페즈 알 아사드 대통령이 무력으로 정권을 장악한 이후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시리아 정부는 다수의 수니 세력들과 그밖에 현정권에 대항하는 세력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사회주의 체제 속에서 반대 세력들을 제거하기 위해 이들은 비밀경찰들을 조직하여 사람들의 행동을 감시하였고, 이런 과정에서 시아파 무슬림 형제단을 강경하게 진압한 1982년 ‘하마(Hama)의 참극’은 많은 이들의 비난을 불러오기도 했다.

⁶¹ 이들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리아 북쪽지역(쿠르드 집단 거주지)을 여행했다는 명목으로 추방당했다고 함.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리아에는 아직까지 팔미라, 무슬림 형제단과 같은 반정부 세력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시한 또 다른 반정부 세력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하는 문제는 항상 시리아 현정부의 큰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 또한 이들을 통한 정보유출도 시리아 정부의 입장에서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러한 이유로 시리아 정부는 다수의 비밀경찰들을 곳곳에 포진하여 국민들의 모든 활동들을 감시하고 있다. 확실치는 않으나 비밀경찰의 수가 시리아인의 20%나 된다는 이야기도 있으니 그 규모가 얼마나 큰지 가히 짐작 할 만 하다.

(2) 시리아 정부와의 갈등

시리아에는 쿠르드족과 관련된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독립문제나 인종간의 갈등은 잠재적인 시리아의 위협 요소이다. 2004년 3월에는 시리아 알레포에서 쿠르드족과 아랍인들의 충돌이 있었다. 쿠르드족측은 이날 시리아 알레포에서 쿠르드족과 아랍인들간의 충돌로 쿠르드인 9명이 숨졌으며 인근 도시인 이프린에서 6명, 터키 국경지역의 라스 알 아인에서 2명이 각각 사망했다고 말했다. 시리아 북부 쿠르드족 거주지역에서도 소요 사태가 확산돼 쿠르드인이 지난 주말 이후 최소한 30명이 숨지고 250명이 부상했다고 쿠르드 민주진전당의 압텔 아지즈 다우드 사무총장이 2004년 3월 17일 밝혔다.⁶²

삶의 전반에서 쿠르드인들은 시리아 정부의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많이 위축된 상태이며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헌법에 이슬람 국가라고 명시되어 있는 시리아의 쿠르드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아보인다. 쿠르드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장 크게 방해하는 외부적인 요인은 현재 그들이 처해있는 국가와의 정치적인 갈등이다.

(3) 쿠르디스탄 지역의 국제적인 정세

쿠르드족은 터키 동부지역, 이란 남서부지역, 이라크 북부 지역, 시리아 북부 지역 등에 분포하고 있다. 이 지역은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의 수원이 되고 있는 거대한 반(Van) 호수 북쪽 평원지역, 이라크 북부의

⁶² 2004년 3월 18일, 코소보-시리아 인종 충돌 확산(세계일보) 기사에서 발췌

유전지대로 구성되는 쿠르디스탄 지역은 석유 등의 지하자원과 수자원의 보고이며 농경에 좋은 땅으로서 주변 강대국이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다. 그래서 이 지역의 강대국은 분할통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것은 쿠르드족의 독립에 방해요소가 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자국의 이익 중심의 대쿠르드 정책도 그들의 독립에 장애요소이다. 친미국가인 터키의 쿠르드인에 대해서는 그들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쿠르드인들을 억압하고 있는 반면에 이라크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쿠르드 자치 정부를 지원해주는 등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쿠르드 문제를 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연합(UN)도 3,000만 명 수준의 거대한 쿠르드 종족의 문제에 있어서는 직접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덮어두는 경향을 보인다.

2) 종족 내부적 방해요인

(1) 쿠르드족의 분열과 배타성

쿠르드족은 크게 4개의 언어권으로 분열되어 있으며 이 언어들은 쿠르드족이 다른 나라에서 살게 되고 몇 백년이 지난 지금, 서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정도의 방언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언어적 분열과 함께 쿠르드족은 부족과 부족 연합들로 대립적인 생활을 하며 이들 간에 반목이 있고, 수 백년에 걸쳐 내려오는 '힌다리' 라는 부족간의 복수전이 쿠르드족 내부의 부족간 분열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분열은 쿠르드족이 민족국가로 가지지 못하게 하는 절대적인 요인임과 동시에 복음 전파에 커다란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쿠르드 전통의 부족사회는 외부에 대한 강력한 배타성과 내부적으로는 강력한 일체성을 가지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쿠르드족 개인은 일반적인 무슬림 사회에서 보다 더욱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2) 쿠르드족의 토착종교

쿠르드족은 이슬람을 받아들이기 전에 토착 종교인 천사숭배(사탄 숭배)와 조로아스터교(배화교), 기독교 등의 종교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슬람을 받아들인 후에도 이슬람 이외에 이들 종교를 혼합한 형태의 알레비즘을

비롯하여 사탄을 숭배하는 야즈디교 등의 종교를 가지게 되었다. 쿠르드족은 각 부족마다 물라와 셰이크들을 가지고 있어 이들이 부족민의 이슬람 교육을 담당한다. 이 두 세력가는 쿠르드족 사회에서 최고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로써 신접하는 체험을 중요시하는 수피주의 교단의 지도자들이다. 이러한 모든 영적 세력들은 쿠르드족 선교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

3) 기존선교활동의 한계

시리아에서는 현재 쿠르드족을 위한 직접적인 사역은 없는 상황이다. 시리아 A도시에서 사역하시는 K 선교사님께서도 현재 시리아에서 쿠르드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적인 사역은 없으며 쿠르드인과 관련해서는 모든 일을 조심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이야기해주셨다. 실제로 터키에는 많은 사역자들과 기도 중보자들이 있어서 복음을 접한 쿠르드인이 많은 상황이지만 시리아는 아직까지 정치적으로 독재체제국가이기 때문에 마음놓고 사역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위의 정치분야에서 언급했듯이 쿠르드족은 독립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종족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그들을 억압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쿠르드인들이 모여서 모임을 가진다고 하면 비밀경찰들이 꼭 감시를 하기 때문에 어떤 모임을 가지는 것이 힘이 든 상황이며 2008년에 한국 장기 사역자들이 단기선교팀을 도와 쿠르드인을 만났다가 나중에 추방당한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외국인들이 쿠르드 현지인을 만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일임을 알 수 있다.

3. 쿠르드 종족 선교의 가능성

1) 기존 방해요소들의 변화

시리아의 쿠르드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시리아의 정치적인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종교적인 이유나 기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비롯한 어떠한 다른 모임도 허용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상황이 앞으로 시리아 쿠르드족에게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더 크게는 국제사회에서 쿠르드족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현재 이라크 북부에 쿠르트 자치정부가 세워진 상황이고 터키의 쿠르트족도 기회만 있으면 독립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다. 4개국에 걸쳐서 몇 백년 이상을 끌어온 민족문제이기 때문에 UN에서도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조용히 덮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강대국들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를 보이면서 쿠르디스탄을 허용해주는 방향으로 문제해결의 가닥을 잡는다면 쿠르드인에게 복음은 급진적으로 전해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주어진 상황들을 놓고 본다면 상황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이 이라크의 쿠르트 자치 정부는 지원해주면서 터키의 쿠르드인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이중적인 태도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강대국들은 쿠르트 문제에 관하여 자국의 이익을 기준으로 행동하고 있으며 이라크도 자치 정부는 인정하지만 독립 국가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터키, 이란, 시리아는 이라크보다 더 억압적으로 쿠르드인 억압 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이다.

전통적인 쿠르트 사회는 부족과 몇 개의 부족들이 합해진 부족연합을 하나의 생활 공동체로 형성되어 있다. 부족은 공동의 목초지를 가지고 있으며 외부에 대하여 하나의 정치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상당수의 경우 쿠르트 부족은 혈연적 관계에 기초하여 이뤄져 있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역사적, 경제적으로 하나의 공동체로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점차로 촌락을 중심으로 형성된 쿠르트 사회 체계는 점차 변화되어 도시 중심 생활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이러한 도시화 현상에 따라 아가를 중심으로 한 사회 질서도 새롭게 재편되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변화는 쿠르트 공동체의 배타성과 독특성을 약화시켜 기독교를 상대적으로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세계 및 현지 선교상황의 변화

2004년 Shout for Joy Syria 기도운동 이후로 2005년부터 시리아에는 장기 선교사들이 많이 유입되었다. 2009년 1월 현재 시리아에는 한국인 선교사의 수만 약 15가정이나 되고, 이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런데 이러한 시점에서 2008년에 발생한 한국인 선교사 추방 문제는 시리아 내 선교사들 사이에 새로운 전략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현지 선교사에 의하면 선교지에서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한다. 기도, 성령 그리고 연합이 바로

그것이다. 지금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도 바로 이 연합의 문제이다. 시리아로 파송되는 선교사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비단 사역을 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위기 상황을 직면했을 때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이를 대처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역자들 간의 선교단체 간의 온전한 연합이 반드시 필요하다.

3) 효과적인 복음의 접촉점

지금 현재로서는 외국인 사역자들이 쿠르드인들과 접촉하기 위해서 아무리 좋은 방법을 생각해낸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감시를 받지 않을 수가 없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종족이고 여러 가지로 억압을 하는 상황 속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의심을 덜 받고 접근할 수 있는 접촉점으로는 먼저 경제적인 접근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시리아 북부에 있는 알레포 대학이나 수도에 있는 다마스쿠스 대학 등을 교환학생이나 아랍어 과정으로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쿠르드인을 만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또 위성방송을 이용한 복음의 전파, 시리아의 열악한 지역의 의료봉사팀 파견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1) 경제적인 접근

시리아의 쿠르드인들은 대부분 열악한 경제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 시리아에서 천하고 단순노동으로 여겨지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쿠르드인이다. 복음이 쿠르드인들에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한다면 가난하고 상한 자들에게 훨씬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쿠르드인들이 사는 마을은 육체적, 사회적 필요가 많이 필요한 곳이다.

일반적으로 궁핍한 세계의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네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경제적인 성장에 초점을 맞춰서 그들 지역(또는 국가)의 거시적인 경제력에 초점을 맞춰서 접근하는 방법이다. 두번째는 정치적 해방에 초점을 맞춘 접근으로 ‘가진 자들’과 ‘가지지 못한 자들’ 간의 간격을 넓히는 억압적인 체제들, 인권 침해, 착취적인 상업 구조 등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세번째로는 구제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전쟁, 자연 재해, 장기적인 불의 등의 희생자들이 생존하기 위한 기본 생필품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 사회/변혁적 개발에 초점을 맞춰서 지역의 지도자와 자원들로 기본 필요를 채우게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적절한 평가 및 개인적,

공동체적 능력과 자원들을 사용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접근이 있다.⁶³

단기적으로 구제차원에서 쿠르드인들을 접촉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리아 정부 차원에서 쿠르드 지역에 대한 경제적인 발전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마을에는 전기와 수도시설도 갖추어지지 않은 마을이 있다. 기본적으로 생존에 필요한 것들(식량, 수도시설, 전기시설 등)을 채워주면서 그들과 자연스럽게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동시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독교적인 지역 사회 개발을 시도할 수 있어야 한다. 구제의 노력은 오래 지속되면 지역 사람들이 스스로 생산하려고 개발하려는 의욕을 빼앗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위의 전기^수도시설들을 마을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 나간다면 그들이 중심이 된 지역 개발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중요한 부분은 그들의 가치관과 비전을 바꾸어 가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관계를 형성해 나가면서 역사적으로 무시와 천대, 억압을 당해왔던 그들에게 희망을 보여주고 자신감을 불어넣어준다면 복음은 더 강하게 쿠르드족에게 전해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을 할 때에 가장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은 시리아 정부이다. 현재 정부차원에서 쿠르드족을 감시하고 있고 정책적으로 억압하고 있는 가운데서 정부의 허가 없이 쿠르드 마을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 행동은 쉽지 않다. 실제로 A도시의 침례교회에서는 교회 내에서 소매업을 시작해서 쿠르드인의 고용을 창출하였다. 쿠르드인이 중심이 되어 쿠르드 사회의 경제 발전과 복음 전파를 도모하려고 한 것이다. 하지만 교회라는 특성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업을 지속하지 못했다고 한다. 따라서 정부의 태도가 이 접근의 성패를 결정할 것이다.

(2) 쿠르드 대학생

시리아의 북부지역에는 알레포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곳에는 알레포 대학이 있다. 알레포 대학은 시리아에서 두번째로 유명한 대학으로 많은 학생들이 다니고 있으며 타 지역에서도 많이 오는 학교이다. 지리적인 특징으로 인하여 많은 쿠르드인들이 이 대학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장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뷰를 하면서 알레포 대학에 다른 동양 학생들(한국, 중국, 일본 등)이 다니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 대학에 교환학생으로 다닐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외에도 대학부설어학원에 아랍어를 배우기 위하여 다닌다면 충분히 몇 년

⁶³ Mission Perspectives(미션 퍼스펙티브, 랄프 윈터^스티븐 호튼 저, 예수전도단)
“기독교적 지역 사회개발” (391p)

동안은 안정적으로 쿠르드인들을 만나면서 사역할 수 있을 것이다.

쿠르드족은 자신들의 종족성이 강한 종족이다. 오랜 시간 나라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타종족에 대한 배타성이 강하며 내부적으로 일체성이 강하다. 그리고 본 조사팀이 가서 만난 쿠르드족 대학생(청년)들은 우리나라의 대학생들과 비슷하게 새로운 문화에 대하여 개방적이고 수용성이 높았다. 쿠르드인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알레포 대학, 다마스쿠스 대학 등)에 공식적인 학생 신분을 얻어서 학교를 다닌다면 자연스럽게 쿠르드 대학생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고 이들은 상대적으로 복음에 대하여 좀 더 유연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좋은 복음의 접촉점이다.

(3) 위성 방송

시리아 전역에는 위성방송이 보편화 되어있다. 이는 본 조사팀이 다녔던 모든 지역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시골마을에도 전기만 들어온다면 위성 안테나를 통하여 위성방송을 수신하고 있었다. 정치적인 이유로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기 어려운 쿠르드족에게는 위성방송을 통한 복음의 전파가 효과적인 복음의 접촉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매체는 정부의 감시와 규제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롭고, 본인이 보고 싶은 채널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이점이 있다. 크리스천 위성방송사에서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과 다양한 언어(아랍어, 쿠르드어 등)를 이용하여 방송한다면 다양한 사람들이 이 흥미를 가지고 이 방송을 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4) 의료 봉사

쿠르드 사람들이 사는 시골 마을에는 사회기반시설이 매우 취약하다. 본 조사팀이 방문했던 시리아 북부 아프린(Afryn)에는 366개의 쿠르드 마을이 있었다. 시리아 제 2의 도시 알레포(Aleppo)와 60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린 마을 사람들이 몸이 아플 경우에는 알레포까지 차를 타고 치료를 받으러 가야 한다는 것을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의료 봉사팀이 전략적으로 쿠르드 마을에 의료봉사 목적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복음을 전한다면 좋은 복음의 접촉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쿠르드 종족의 선교전략 제언

1) 선교전략 기본방향 제시

현재까지 시리아 쿠르드 종족의 복음화율은 0.13%(여호수아 프로젝트)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이 무슬림이며 복음이 전해지기 어려운 정치적인 상황에 놓여있다. 2000년대부터 쿠르드족에 관한 선교적인 측면의 관심이 높아졌지만 이러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실제적인 선교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시리아 쿠르드족에게 더욱 강력하게 적용되어 터키의 쿠르드족에게는 상당 수의 사역자들이 들어가 사역하고 있지만 시리아에서는 쿠르드족에게 접근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종족보다는 민족’을 우선시하는 쿠르드 종족의 특성상 개종을 했다고 해서 아랍 사람들과 같이 친족을 살해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가정의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 가족 전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족이 쿠르드족이다. 그리고 쿠르드족이 99%가 무슬림일 수 밖에 없었던 역사적인 이유를 알고 그 외에도 쿠르드족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정확하게 알고 쿠르드족을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 외에도 쿠르드어를 할 수 있는 외국인 사역자들은 거의 없는 상황인데 쿠르드족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으로 기대하며 지금부터 언어나 기타 여러 가지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대상별 전략 제언

(1) 쿠르드 대학생 사역

. 요즈음 한창 주목을 받고 있는 선교전략 중 하나는 각 나라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캠퍼스 사역이다. 이는 한국 대학생 혹은 청년들이 각 나라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제시하는 사역으로서 실제로 시리아 내에 한 선교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열매도 상당하다. 캠퍼스 사역은 같은 학생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여 그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며 신뢰를 형성하여 자연스럽게 복음이 그들에게 흘러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쿠르드족이 많이 살고 있는 시리아 북부 알레포 지역에는

시리아에서 두번째로 큰 알레포 대학이 있다. 외국인에게 관심이 많고, 외부 문화를 빠르게 수용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캠퍼스 사역이 이루어진다면 이들을 통해 쿠르드인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좋은 접촉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십자수, 비드 등을 통한 여성사역

쿠르드 사회는 남녀차별이 심하지 않고 외부인 남성이 쿠르드족 여자와 접촉하는 것이 심각할 정도의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은 아직까지 아랍 사람들이 기득권층을 이루고 있는 아랍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쿠르드 전도를 위해서는 여성 사역자들이 쿠르드 여성들을 사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표적으로 십자수, 비드 등을 통한 여성 사역이 있을 수 있다. 쿠르드문화의 특성상 이들은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며 담소를 나누는 것을 매우 좋아하는데 오랜 시간 이들과 같이 십자수, 비드와 같은 활동들을 하며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쉽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3) 지역 개발을 통한 빈민층 사역

도시에 다른 종족 사람들(아랍인, 아르메니안인 등)과 어울려 사는 쿠르드인들 외에 시골에서 그들끼리의 공동체를 형성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회기반시설과 거리가 먼 생활을 하고 있다. 거의 모든 마을에 의료 설비나 기관이 부족하거나 전무하고 학교 시설이 없는 마을이 많았으며 교회가 없었고 정부와 NGO는 그 지역들을 방치해 놓고 있었다. 이러한 마을들이 시리아의 북부 지역에 많이 존재한다. 이러한 마을들을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변혁 개발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지역 사회의 사람들에게 그 지역을 개발시키려고 하는 의지를 고취시키고 관계 기관의 허가과 도움을 받아서 그 지역 사회의 개발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이 사역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는 역시 정부의 허가가 될 것이다. 쿠르드인들이 쿠르디스탄이라고 주장하는 지역에 시리아 북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리아 정부에서 이 지역을 감시하고 있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NGO차원에서 지역 개발을 시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정부의 허가를 받아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3) 분야별 전략 제언

(1) 알레포(Aleppo)를 중심으로 한 시리아 쿠르드 종족 거점 선교

세계화에 이은 도시화 현상은 시리아도 예외가 아니다.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는 시리아도 중국처럼 경제 분야에 자본주의적 요소를 도입하고 있다. 자본주의가 도입됨에 따라 대도시를 중심으로 점차 현대적인 도시화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 쿠르드 종족도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도시로 모여들고 있는데 주로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Damascus)와 제 2의 도시인 알레포(Aleppo)로 모여들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서북부 쿠르드 집단 거주지역의 쿠르드 인구보다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대도시로 몰려온 쿠르드 인구가 더 많다고 한다.

또 시리아의 교육열은 높은 편이다.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대학까지 무상으로 교육을 마칠 수 있으며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몇 번씩 대학입학시험을 치르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교육열은 쿠르드인들도 마찬가지여서 쿠르드인이 많이 살고 있는 대도시의 대학(다마스커스 대학교, 알레포 대학교)에는 많은 쿠르드 청년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다.

시리아의 쿠르드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거점을 정하여 선교하는 것은 중요한 선교전략이 될 것이다. 본 조사팀은 쿠르드족의 선교 거점으로 알레포(Aleppo)를 추천한다. 그 이유는 첫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세계화로 인한 도시화 현상으로 많은 시리아 사람들이 대도시로 유입되고 있는데 쿠르드 종족도 같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알레포의 지리적 이점을 들 수 있다. 현재 가장 쿠르드인이 많은 곳은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이다. 그러나 다마스커스는 지리적으로 시리아의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곳으로 몰려든 쿠르드인의 목적은 대부분 경제적인 이유에서이다. 하지만 알레포는 시리아의 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쿠르드인들이 집단으로 모여 사는 국경지역과 인접한 곳에 있다. 셋째, 거점 선교를 통하여 쿠르드 마을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알레포 대학교에는 많은 쿠르드인들이 다니고 있는데 이 곳을 다니고 있는 쿠르드인은 알레포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다른

도시에서 온 경우도 있다. 또 알레포에서 6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는 아프린(Afrin)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본 조사팀이 만난 쿠르드인의 대부분은 고향이 아프린이라고 이야기했다. 알레포에서 복음이 전해진다면 자연스럽게 주변에 있는 도시에 사는 쿠르드인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사역자들의 행동이 상대적으로 덜 의심받고 자연스러울 수 있다. 시리아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쿠르드 종족에 관하여 감시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조사팀이 쿠르드인이 많이 살고 있는 시리아의 서북부 도시(캄술리 등)에 방문했을 때 비밀 경찰들이 감시를 하여서 원활한 조사 활동을 펼치지 못하였다. 하지만 알레포는 대도시이면서 크게 여섯 종족(아랍인, 아르메니안인, 쿠르드인 등)이 모여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활동의 제약을 덜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2) 현지 개신교회와 협력하는 쿠르드 종족 선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나갈 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협력하여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할 때에 매우 큰 유익들이 나타난다. 지난 10,20년 동안 세계의 사회 정치적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미전도 종족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유례없이 크게 열려 있다. 그리고 세계 수십 개국에서 많은 선교사들과 하나님 나라의 다른 자원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서로 협력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선택이 되었다.

우리가 협력을 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 성경적이기 때문이다. 둘째, 협력은 공동체의 증거가 지닌 힘의 본을 보여준다. 셋째, 협력은 교회를 발전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다. 넷째, 변덕스러운 세례의 상황 때문에 협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협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의 사용을 극대화시킨다.

따라서 우리는 쿠르드 종족을 전략적 복음 전도하고 쿠르드인 교회를 개척하여 교회가 정착하고 쿠르드인들이 그 교회 안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 때에 전략적 복음 전도/교회 개척 협력을 해야하는 이유는 서로 다른 부분들이 함께 일하며, 각 교회, 후원자, 선교 기관이 전체 사역에 자원들과 전문적인 기술들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협력 접근법의 모습은 받는 자의 입장에서 총체적인 것으로

보인다.⁶⁴

본 조사팀이 시리아의 알레포 지역을 방문했을 때 그곳에는 알레포 침례교회가 있었다. 침례교회에서는 현재 자신들의 교회를 도와줄 수 있는 사역자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 교회가 나선다면 외국인 사역자의 비자 문제를 1년, 2년 단위로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신분을 보장받고 그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아랍 개신교회의 내적 성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현재 아랍 교회는 구조적인 성장과 함께 영적(질적)성장, E-O 회심 성장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이다.⁶⁵ 시리아는 다수의 사람들이 이슬람교를 믿기 때문에 개신교회(침례교, 장로교, 연합교회 등)의 비율이 굉장히 낮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대부분 조상 대대로 크리스천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자신도 자연스럽게 크리스천이 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본 조사팀이 만났던 상당 수의 크리스천들은 전도에 대한 열정이 많지 않았으며 교회에서도 정부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포교활동은 쉽지 않다고 하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외국인 선교사들 단독으로 쿠르드인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의 교회와 협력하여 쿠르드인들을 그들의 지역에 있는 현지인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3) 예수제자 훈련(DTS, Disciples Training School)

오랜 기간 강대국들 사이에서 억눌려온 쿠르드인들은 다른 종족의 사람들에게(외국인들도) 쉽게 그들의 마음 문을 잘 열지 않는다. 항상 정부의 감시를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정부의 첩자는 아닌지 항상 생각하고 이방인들을 대하게 된다. 이런 시리아의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는 외국인 사역자들이 그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쉽지 않고 복음을 제시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좋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의 열정을 가진 쿠르드인 몇 사람을 길러내어 시리아 쿠르드족 선교의 최전방으로 보내는

⁶⁴ Mission Perspectives(미션 퍼스펙티브, 랄프 윈터스틴 호돈 저, 예수전도단) 514p

“협력 관계가 가진 힘”(The power of partnership), 필

립 버틀러

⁶⁵ Mission Perspectives “교회의 자발적인 배가” (425p)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적 성장의 세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조적 성장은 청년부, 성가대, 주일 학교 등을 만드는 것과 같이 내적 구조를 성장시키는 것이다. 둘째, 영적(질적)성장은 교회 공동체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서 성장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E-O 회심 성장은 명목 상의 교인들이 진정한 믿음으로 회심하는 것을 말한다.

것이다.

시리아 다마스쿠스에서 사역하시는 S 선교사님은 현재 시리아 인접 국가인 레바논과 요르단에서 진행되고 있는 DTS(예수제자훈련, Disciples Training School)를 2009년에는 시리아에서 할 계획에 있다고 이야기하셨다. DTS는 다른 선교전략과 다르게 현지인들을 집중 교육 시켜 현지로 침투시키는 것으로 굉장히 복음화율이 높은 선교 전략이다. 지금까지는 정부의 감시 등 여러 가지로 장애가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시기를 인도하시고 열어주셔서 올해부터 시리아 현지 교회와 같이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셨다. 물론 정부의 감시가 있기 때문에 쿠르드인들을 집중적으로 제자 훈련을 시킬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DTS 훈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현재 시리아 인구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쿠르드인 중에서 이 훈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다시 그들의 마을로 들어가 복음을 전할 사람이 반드시 생길 것이다.

(4) 위성 방송 선교

시리아와 중동지역 전역에 설치, 보급되어 있는 위성방송 사업에 크리스천 방송을 더욱 확대시켜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 중동의 위성채널에 있는 대부분의 크리스천 채널은 Hotbird 라는 곳에 소속되어 있다. 이 채널군에 성인방송이 많은 채널군인데 크리스천 채널들이 이 방송들과 같이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방송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많은 중동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방송을 개선한다면 더욱 좋은 복음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이라크 북부 지역의 쿠르드 자치정부 지역에서 쿠르드 방송을 송출하고 있으며 그 방송은 중동 전역에서 시청이 가능하다. 이 방송과 연계하여서 쿠르드 기독교 방송 채널을 만든다면 쿠르드인들에게 미치는 파급 효과는 매우 클 것이다. 위성 방송 선교 채널들은 대부분 영어로 이루어져있는데 좀 더 이 부분에 인력과 장기적인 관심을 가져서 쿠르드어를 할 수 있는 인력들과 방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좋은 쿠르드 위성 방송 선교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 단기 의료 봉사 활동

쿠르드족을 대상으로 (단기)의료봉사를 하는 것도 좋은 접착점이 될 수 있다. 많은 쿠르드인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상황이며 알레포 근처 이프린은 의료 시설이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 의료 봉사팀이 들어갈 수 있다면 기독교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6) 국제 결혼 사역

최근 시리아에서는 러시아 여성과 쿠르드 남성들이 결혼하는 국제 결혼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그리스 정교를 가지고 있는 러시아 여성들을 잘 도와주어서 시리아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면서 관계를 형성하고 복음을 제시한다면 그리스 정교와 비슷한 종교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개신교)를 받아들이기가 좀 더 쉬울 것이다. 이는 쿠르드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좋은 접착점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은 현지 교회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곳에서 이 지역으로 처음 온 이방인에게 접근할 때에 또 다른 이방인이 접근하는 것보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크리스천이 접근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클 것이기 때문이다.

4) 현지교회 개척 전략

(1) 전도의 방향성

전도의 방향성은 크게 거시적인 관점, 미시적인 관점, 그리고 사역적인 관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거시적인 관점에서 시리아 쿠르드 종족 선교는 알레포를 중심으로 한 거점 선교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시리아의 경제구조가 자본주의 형태로 바뀌고 도시화 현상이 생기면서 쿠르드인들도 다른 종족과 마찬가지로 도시로 모이게 되었다. 알레포는 지리적으로 쿠르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시리아 북부 지방의 중심지이며 이 곳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다. 또한 시리아 제 2도시이면서 여러 종족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사역자들이 거주하기가 용이하다.

다음으로 미시적인 관점에서는 가족 중심의 복음 전과 방식을 취해야 한다.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쿠르드족은 그들만의 유

대감과 일체성이 상당히 강하다. 집안의 가장을 전도할 수 있다면 아직까지 가부장적인 가족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쿠르드 문화 속에서 그 가정은 쉽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친족들간의 유대감도 강하기 때문에 복음이 한 사람에게 잘 들어간다면 그 가족과 친족들을 전도하는 것이 그 다음 순서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역적인 부분에서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부분부터 접근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많은 쿠르드인들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다. 시골의 쿠르드 마을은 사회기반 시설이 열악한 곳이 많고 오랜 기간 강대국들의 억압을 받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심령이 매우 가난한 상태이다. 우리가 쿠르드인들의 필요를 잘 알고 이 부분을 채워줄 수 있다면 더 쉽게 그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복음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교회의 형태

가족 중심의 회심이 이루어지면 가족 단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교회)가 형성된다. 대도시에서는 소수이지만 개신교회를 중심으로 쿠르드 크리스천 공동체를 확대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C2단계-아래에서 설명). 하지만 정부에서 많은 쿠르드인들이 모여서 모임을 가지는 것은 교회의 예배라고 할지라도 감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개신교회가 없는 시골의 쿠르드 마을에서는 개신교회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를 만들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그들 생활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슬람 문화 속에서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고 성경적으로 허용되는 문화적, 이슬람적인 형식을 사용하는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C4단계-아래에서 설명)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3) 상황화 전략

복음의 외적인 요소가 복음 자체의 전파를 어렵게 만드는 장애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는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배경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 복음을 훼손시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의 상황화를 제안할 수 있다.⁶⁶

그렇다면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C", Christ-centered Communities)의 상황화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자 크게 상황화의 수준에

⁶⁶ 종족과 도시 선교저널 NO14. 83p

따라서 여섯 단계(C1-C6)로 분류하는데 C1 단계는 외부인 언어(말과 생활방식 등)를 사용하는 전통적 교회형태이다. 많은 교회들이 서구문화를 반영하며 무슬림 공동체와는 커다란 간극이 존재한다. C2 단계는 교회가 개척된 곳의 언어(내부인 언어)를 사용하는 전통적 교회이다. 언어를 빼고는 C1과 큰 차이가 없으며 무슬림들과의 문화적 격차도 크다. 오늘날 무슬림권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교회가 C1과 C2형태이다.

C3 단계는 내부인 언어와 종교적으로 중립적인 내부인 문화형식들을 사용하는 상황화된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이다. 성경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형식들에 맞게 상황화하고 이슬람적인 요소나 다른 종교의 요소들이 있는 것을 걸러내면서 순전히 ‘문화적인’ 형식을 가지고 있는 교회이다. C4 단계는 내부인 언어와 성경적으로 허용되는 문화적, 이슬람적인 형식들을 사용하는 상황화된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이다. C3와 비슷하지만 성경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이슬람적인 형식과 관습들도 사용된다(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 금식일을 지키는 것, 돼지고기나 술을 먹지 않는 것 등). 일반적인 무슬림 공동체에서는 C4 공동체를 무슬림으로 여기지 않는다. C5 단계는 예수님을 주님과 구세주로 영접한 ‘메시아적 무슬림들’의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이다. C5 공동체는 법적, 사회적으로 이슬람 공동체 안에 남아있다. 이슬람 신학의 측면에서 성경과 양립될 수 없는 것은 거부하거나 가능한 경우에는 재해석한다. 이슬람 예배의 참석 여부는 C5 공동체마다 다르다.

마지막 C6 단계는 비밀/지하 신자들로 구성된 소규모의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이다. 정부나 지역 공동체의 보복 때문에 비밀리에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무슬림 공동체에서는 C6 신자들을 무슬림으로 인식하며, C6 신자들은 자신들을 무슬림들이라고 밝힌다.⁶⁷

쿠르드인들은 오랜 시간동안 이슬람교를 그들의 종교로 받아들였고 이슬람교는 그들의 전통적인 문화와 함께 오랜 시간 그들의 생활의 한 부분이 되어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쿠르드인들이 형식적으로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상황이다. 많은 쿠르드인들이 조상 때부터 이슬람교를 믿어왔기 때문에 지금도 이슬람교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도시에는 지역교회가 있고 쿠르드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C2 수준의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계속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⁶⁷ Mission Perspectives(미션 퍼스펙티브, 랄프 윈터스틴 호돈 저, 예수전도단) 467p
“C1에서 C6까지의 범위(The C1 to C6 spectrum)”,

쿠르드인들만 사는 마을에서 크리스천 공동체가 생긴다면 혈연 중심의 쿠르드 사회에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C1과 C2와 같은 공동체를 만들어서 신앙 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다. 본 조사팀에서는 최대 C4 단계의 상황화 전략을 제안한다. 쿠르드인들은 역사적으로 정치적, 사회적 상황 때문에 이슬람교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것은 쿠르드 전통 문화와 결합되어서 지금 대부분의 쿠르드인에게 이슬람교는 그들의 생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슬람교가 그들의 생활인 쿠르드 공동체 속에서 이슬람적인 용어들과 의상들, 성경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구원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이슬람적인 형식들과 관습들을 사용하면서 상황화 공동체를 유지한다면 복음의 외적인 요소에 의하여 복음 자체의 전파가 방해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V. 나가는 말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는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천들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씨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3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전세계인의 구원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이다.⁶⁸

쿠르드족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중앙아시아 및 중동 레반트 북부 지역에 살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쿠르드족. 본 조사팀은 그들의 전반적인 생활과 사회 및 종교에 관하여 조사하였는데 쿠르드족을 더 알기 원한다면 그들의 역사와 정치적인 영역 그리고 종교에 대하여 더 심도있는 조사가 필요하다. 특히 MFR 15기가 만난 시리아 쿠르드족은 정부의 억압을 많이 받고 있다. 시리아 쿠르드인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시리아 북부지역에는 비밀경찰이 굉장히 많이 배치되어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타종족 사람들이 쿠르드인들을 천대하고 있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쿠르드인들은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그들이 쿠르디스탄(쿠르드인의 땅)을 건국하기 위하여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독립을 시도했지만 계속적으로 그 시도들이 무산된 것에서 기인한다. 우리는 그들이 시리아 정부의 민족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그들의 고유 문화를 지키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아랍 무슬림들과 달리 그들이 중시하는 것은 종교보다 민족이었으며 쿠르드 대부분이 무슬림이었지만 그들의 전통적인 문화와 융합시켜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종교성은 약한 편임을 조사 결과 알 수 있었다.

또한 쿠르드인들의 문화는 한국과 유사한 부분이 많았다. 서구와는 달리 집단중심, 가족중심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으며 강대국에 의해서 지배를 받을 때에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그들의 말과 역사, 그리고 민족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끈질김까지 비슷하였다. 그리고 이라크 북부 쿠르드 자치지구에서 4년 3개월 동안 활동하고 2008년 12월에 철수한 자이툰 부대로 인하여 쿠르드인들이 한국에 가지는 이미지는 상당히 좋은 편이다. 따라서 서구 선교사보다는 한국 선교사가 쿠르드 사역을 할 때 가지는 이점이

⁶⁸ Mission Perspectives(미션 퍼스펙티브, 랄프 윈터스틴 호돈 저, 예수전도단) 30p
“살아 계신 하나님은 선교하는 하나님이시다(The living God is a missionary God)”, 존 스트리트

더 많을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셨다. 시리아 쿠르드인들이 처한 경제적, 정치적 상황은 매우 가난하다. 그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각종 혜택에서 벗어난 영적, 육적으로 가난한 종족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역사적으로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다. 그들 가운데에는 오랜 투쟁으로 인한 좌절감, 실패감 등이 있으며 여러 나라에 걸쳐 오랜 시간 살아왔기 때문에 쿠르드의 전통적인 정체성과 쿠르디스탄에 대한 생각까지 달라진 상황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는 복음이 절실하게 필요하며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민족보다 종교를 우선시하는 정통 아랍 이슬람보다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좀 더 수월할 수 있을 것이다.

기뻐하라 쿠르드! 찬양하라 쿠르드! 그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돌린다.